

分財記



[해제]

용경(隆慶) 6년(1572, 임신년壬申年) 11월 5일, 자식들에게 노비와 전답, 그리고 사는 집을 뿔뿔으로
고루 나누어준 각장의 문서는 자필로 친히 써서 주었거니와, 혹시 유실됨이 있을까 걱정되어 다시 한
장에 그 모두를 써서 준다

[목차]

分財記

分財記

[원문]

원문(原文)1)

隆慶六年2)壬申十一月初五日子息等亦中3)奴婢田畝及家舍等乙4)平均分給5)

各張文記6)親自書給爲在果7)慮或有遺失者又於一張良中8)都許與書給爲臥乎事9)

長女 成均進士崔棄母衿10)

奴蒙同三所生11) 婢能非年五十五12) 買得婢竹非年六十13) 奴檢孫二所生14) 婢石代年四

十二15)買得奴千石年四十三16)奴姜金 ∞ 所生17)婢豐非年五十二18)奴檢孫一所生婢石

非年五十19)奴栢叱同二所生20)婢億福年三十四21)婢豐德一所生22)婢豐介年二十三23)婢甘

德二所生24)婢每邑之年四十六25) 婢永今二所生26) 奴秀伊年四十27) 奴吉萬一所生28) 婢丁代年

四十五29) 婢檢之一所生30) 奴金石年三十九31) 奴栢叱同一所生32) 婢千福年四十三33) 同婢一所生 奴仁

孫年

二十四34) 奴進福二所生35) 奴銀貴年十五36) 奴檢孫二所生37) 奴山伊年四十38) 奴百年三所生39)婢

斤

杯年三十九40) 奴石松三所生41) 婢勻德年三十六42) 奴檢孫三所生 奴山同年三十二43) 婢永今

三所生44) 奴良伊年三十一45) 婢每邑之三所生46) 奴雪金伊年九47) 奴百年四所生 婢守杯年

三十五48) 買得婢末叱德年三十四49) 婢 ∞ 非二所生 奴仁守年三十一50) 婢丁非二所生51) 奴億卜

年十六52) 婢甘德五所生53) 婢李今年三十二54) 婢石非一所生55) 婢業成介年二十四56) 婢蒙

今三所生57) 婢今之年二十四58) 婢萬代二所生59) 奴春桂年二十一60) 婢莫只二所生61) 奴善福年

十一62) 婢能非二所生63) 婢金德年十三64) 婢石非三所生65) 奴漢丁年六66) 奴金石一所生67) 奴春

文年八68) 婢石代一所生69) 婢春德年五70) 婢末叱德一所生71) 奴貴福年九72) 婢信福一所生73) 婢

長介年六74) 婢豐德五所生75) 婢後德年十76) 婢今之一所生 婢鄭福年二77) 奴金石三

所生78) 婢春玉年三79) 平山居婢同叱今年四十六80) 同婢一所生 婢同叱非年十81) 奴訥介

一所生82) 婢訥之年十83) 新奴婢段84) 或亡或逃 無後所生爲齊85) 山後蔡延祉來畝 十八斗

落只86) 都石同畝87) 十五斗落只 屯田坪 ∞ 88) 八斗落只 所橋青非畝89) 五斗落只 池洞李

應壁畝90) 十五斗落只 崔松畝 三斗落只 汪葉亭畝 ∞ 斗落只 高要山前郭萬壽畝十七斗

落只洞里前金文畝七斗落只昌平地張漢小畝五斗落只亭子前金世希畝八斗落

只江曾後徐別畝六斗落只所要古介91)郭宗仁畝六斗落只昌平地崔松畝八斗落只李訓田九斗落

只李曾孫田 七斗落只業伊田92)六斗落只 \neg 93)

次子珍原縣監海容妻金氏衿94)

年深老父無久長之計不多奴婢田畝及家舍等乙95)子孫等亦中96)各衿分給爲

在果97)珍原亦與其兄海寬一時長成才藝早成俱登司馬98)迭爲蔭官99)

爲行如可100)纔及壯年家運中否皆無後橫夭101)使此八十老父獨留人世

終無寄食之地人情天理極爲痛憫無可奈何今與婦氏同議奉祀102)情理

無若骨肉之親是如103)以海清之子德美立爲海容之後高子家良中104)別立祠堂 自

吾夫妻入爲小宗之主105)祠堂良中并爾夫妻 從權不遷106)永世奉祀 亦以一家之情立一

時之規爲去乎107)婦氏有純孝至性遵奉此意慎保終始 以傳永世爲齊108)萬一人事

不幸 德美無後爲良置109)吾子孫中同姓當次人以更良立後爲於110)承重條家舍

田民乙良置111)式爲奉祀人亦中112)專數永傳令備祭物無有窘乏爲乎矣113)元田民數

小承重條略少爲昆114)婦氏邊田民并以隨宜添給115)以圖久遠爲乎事116)ㄱ
 奴蒙萬一所生117)婢蒙今年六十118)買得婢李分年六十119)
 奴檢同年四十九120)奴英三年五十三121)奴姜金伊二所生122)奴姜豐年五十
 三123)奴石松一所生124)新奴加知年四十七125)奴金伊江
 三所生126) 新婢香德年四十六127)買得奴後三年三十九128)婢良非一所生129)婢無心年五十二130)
 奴百年一所生131) 婢萬代年四十二132) 婢蒙今二所生133) 奴英玉年二十八134) 婢甘德三所生135) 婢
 玉
 代年四十二136) 婢蒙今四所生 婢今春年十九137) 買得奴漢世年三十一138) 奴石松二所生139) 婢
 莫只年四十140) 奴姜金伊四所生141) 婢豐德年四十142) 奴檢孫五所生143) 奴二世年二十八144) 奴金
 伊江
 二所生145) 婢加叱非146) 年三十九 婢無心二所生147) 奴秋京年二十三148) 婢百禮二所生149) 新婢銀
 代年三十
 七150) 婢虫介二所生151) 婢石乙之年三十七152) 奴吉萬三所生153) 婢莫德年三十一154) 奴栢叱同三
 所生155) 婢德
 福年二十四156) 婢每叱之一所生157) 婢春介年十一158) 婢莫只一
 所生159) 婢夢介年十九160) 奴蒙同一所生161) 婢蒙介年十九162) 奴檢孫五所生163) 奴山世年二十九
 164) 婢石非二所生165) 婢加進介年十九166) 婢豐
 德三所生167) 奴福堅年十九168) 婢能非一所生169) 婢杯介年十七170) 奴蒙同二所生171) 夢今年十一
 172) 婢香
 蘭二所生173) 奴香綠年九174) 婢加叱非二所生175) 奴件里同年九176) 婢莫只三所生177) 奴石福年六
 178) 婢豐德三
 所生179) 奴後堅年十三180) 婢豐德四所生 婢先德年 ∞ 181) 奴謹世一所生182) 奴彌伊年七183) 婢春介
 一所生184)
 奴木世年二185) 婢加叱非三所生186) 婢莫今年五187) 奴姜豐一所生188) 婢莫乃年二189) 新奴婢及別
 得後所
 生段190) 舉論安徐爲有昆191) 依他例 執持使用爲乎事192)ㄱ
 大初里下金恬畚193) 八斗落只 蛇池下終末畚194) 十五斗落只 庶末畚浦位 并十二斗落只 昌平地
 張翰畚 九斗落只 亭子前郭子成畚 六斗落只 家前延明畚195) 五斗落只 江曾畚 二十斗落只 高要
 山前郭萬壽畚 九斗落只 家前田大成畚 十斗落只 池洞前終伊畚196) 十斗落只 府內趙寬畚 五
 斗落只 豆許末畚197) 三斗落只 高子院小經所畚198) 七斗落只 亭子前羣水田 五斗落只 崔順亨
 田 四斗落只 昌平地林井加大田 十四斗落只 俛仰亭舍書堂 并十餘間 前後左右竹林松林并入
 承重衿199) 高子只瓦家200) 六十餘間 左右前後代田松林201) 奴進福一所生202) 奴富貴年十八203)
 婢甘德五所生204) 奴末叱金年二十五205) 婢蘭金四所生206) 奴末叱致年十九207) 奴毛叱柱二所生
 208) 婢內隱今年十九209) 婢豐
 德四所生210) 婢件里介年十一211) 婢毛德一所生212) 婢石乙非年二十213) 婢喜今一所生214) 奴啓能
 年十二215) 柳下畚
 蔡延祉畚 十斗落只 蛇池下趙斤從畚216) 十三斗落只 亭子前百世畚217) 五斗落只 府內朱則倍
 畚 四斗落只 亭子前李曾孫畚 十三斗落只ㄱ

子海清衿

子息等亦中218) 家舍奴婢田畚等乙219) 均一分給文記220) 親自書給文記 前親得後所生段221) 舉論安除爲去乎222) 并以子孫傳持使用耕食爲乎矣223) 同生中同家舍田民乙224) 未及區處225) 無後身死人爲去等226) 他同生除良227) 各其同母同生以平均分執爲乎事228) 婢甘德一所生229) 婢每邑德年五十一230) 婢仲介一所生231) 奴千年々四十九232) 婢每邑德一所生 婢春花年三十一233) 婢水代三所生234)

奴庚春年二十三235) 婢每邑之二所生236) 婢許叱今年十一237) 婢奉化二所生238) 奴萬眞年十四239) 奴英

三二所生240) 婢訥只年四241) 世龍仇々李永壽畚242) 五斗落只 自隱 々々同來畚243) 五斗落只 大初里億

世畚244) 七斗落只 王世昆畚 七斗落只 新池下金千年畚245) 一斗落只 金五俊畚 二斗落只 柳下崔信宗畚 二斗落只 金同水竹林下分山畚246) 二斗落只 府內許門前億世畚 八斗落只 池洞李

蓉田太種247) 七斗落只 汝矣添給婢金伊德年四十四248) 同婢一所生 奴欣世年十五249) 二所生 婢欣介年十250) 奴石只年四十五251) 婢淡伊年四十四252) 新池下億世等畚253) 十二斗落只 遮西池下申甫畚 七

斗落只 自隱仇々于音來畚254) 四斗落只 泉谷前蔡生員畚255) 四斗落只 南山前徐克甘田 三斗落只 池洞文彥祥畚反田太種256) 六斗落只 徐延明金伊江田并太種257) 三斗落只 所居瓦家 三

十間 及前後代田并太種258) 八斗落只 承重衿婢加叱非 ∞ 所生259) 婢件里德年十三260) 婢古非一所生261) 奴

善金伊年十八262) 大初里前金成壁畚263) 八斗落只 ㄱ

子海澄衿

婢甘德五所生264) 奴李石年三十七265) 婢古非年三十九 奴斤伊三所生266) 奴大福年十七267) 同奴四所生 婢有德年十二268) 婢香蘭一所生269) 婢香今年十二270) 婢英代一所生271) 奴百伊年二十二272) 奴英

三一所生273) 奴注叱沙里年九274) 府內心通毛老畚275) 八斗落只 金謹家前分山畚276) 四斗落只 新池下

文彥祥金千年畚277) 并十二斗落只 鄭世良畚 三斗落只 多勿沙里畚278) 五斗落只 府內樓門前仁孫畚279) 七斗落只 化字代田太種 二斗落只280) 池洞崔世鵬田281) 六斗落只 古川田282) 三斗落只 南山

小田二庫 并三斗落只 汝矣處邊奴道山年六十283) 同奴一所生 婢貴代年二十284) 婢順代年五十三285) 同婢一

所生 婢烟花年二十八286) 婢寶川年四十二287) 同婢一所生 奴陳海年二十四288) 新池下李德世畚289) 七斗落只 韓

好命畚 六斗落只 乎音橋九々畚290) 四斗落只 池洞金仁守畚291) 四斗落只 寺洞千字畚292) 二斗落只 泉

谷前蔡生員畚293) 三斗落只 新池下三俊田 二斗落只 田不足 本無里洞畚294) 五斗落只 所居瓦家及前後代田竹林段295) 汝矣自備之物以乎等用良296) 衿付不冬爲有齊297) ㄱ

申聘壽妻衿

婢水代二所生298) 奴甲春年二十九299) 奴斤伊三所生300) 奴壽福年三十二301) 婢水代一所生 婢福壽年三

十三302) 奴彭伊一所生303) 婢雪非年二十六304) 奴進福三所生305) 婢銀今年十三306) 婢萬代三所生307) 奴春

金伊年十七308) 舍人橋下仁孫畚309) 九斗落只 亭子里前金禮孫畚 五斗落只 大家亭前田反畚310) 六夜未四斗落只311) 遮西池下戒洞畚 八斗落只 同池下金五俊畚 四斗落只 可羅谷來屯田坪畚312) 八斗落只 無里洞田太種313) 七斗落只 裴世平家前銀海畚314) 五斗落只 瓦家三十七間 代田前後并五斗落只315) 汝矣母邊婢山非年四十一316) 婢奉化一所生317) 婢業介年十六318) 分數不足 本婢思郎介一所生319) 婢雙伊年三十320) 同婢一所生奴命長年六321) 婢九月一所生322) 奴即百年十323) 蛇池下金野畚324) 六斗落只 仇萬倍畚325) 七斗落只 遮西池石橋上畚326) 八斗落只 泉谷前蔡生員畚327) 二斗落只 屯田坪畚二斗落只328) 上家前福壽畚329) 二斗落只 田不足 本無里洞畚330) 四斗落只 ㄱ

妾子海源衿

奴恩石一所生331) 婢菊花年二十八332) 奴都致年二十九333) 婢漢今年三十六334) 婢萬代四所生335) 奴春福年十四336) 婢玉代二所生337) 婢銀介年九338) 婢美代三所生339) 婢林代年十九340) 李訓畚 九斗落只 亭子前郭千成畚 三斗落只 府內田允良畚 三斗落只 屯田坪田張畚341) 七斗落只 李世應畚 三斗落只 乎音橋銀海畚342) 八斗落只 昌平開同里李道古畚 六斗落只 大橋上允石田343) 四斗落只 家代田及竹林田 并以五斗落只344) 汝矣母邊奴孫同年四十九345) 同奴一所生 奴姜孫年十三346) 二所生 婢莫介年十347) 婢銀代年五十三348) 同婢一所生 奴環伊年二十349) 婢一代年四十二350) 同婢一所生 婢一介年十五351) 二所生婢一定年十一352) 三所生 婢一春年八353) 婢終伊年六十三354) 同婢一所生 奴億壽年三十355) 奴金山年五十三356) 同奴一所生奴命仇知年三十二357) 二所生 奴莫山年十九358) 奴命仇知一所生 奴命山年十359) 婢石乙非年三十四360) 同婢一所生 婢奇連代年六361) 婢銀介一所生362) 奴禮孫年十九363) 二所生 婢知劫德年七364) 奴良伊二所生365) 奴仍邑同年三十366) 奴甘金伊一所生367) 婢春今年十八368) 鞠自平畚 十斗落只 昌平縣內黃順化家前畚 七斗落只 甌岩前畚369) 十二斗落只 家舍段自備之物以衿付不冬370)

妾子支繁衿

奴除軍年四十六371) 同奴一所生 婢軍非年十六372) 婢奉化三所生373) 奴愛丁年九374) 除軍得後所生三口段 例得以舉論安除375) 寺洞田有畚376) 十三斗落只 乎音橋戒倫畚377) 八斗落只 李永壽田 二斗落只 場門田378) 三斗落只 ㄱ

支長衿

奴恩石一所生379) 婢萬花年三十三380) 同婢一所生 婢平介年十一381) 婢奉化年三十五 寺洞廣石畚382) 八斗落只 鞠銀孝畚 四斗落只 李守良畚 三斗落只 古川畚383) 五斗落只 靈山亭前允石田384) 二斗落只 場門田 三斗落只 ㄱ
父資憲大夫385) 前議政府右參贊兼知春秋館事386) 宋 ▽387) 書 自筆
證參388) 宋海賓 ▽

宋海宇 ▽

陳翼臣 ▽

薛雲龍 ▾

[현대역]

용경(隆慶) 6년(1572, 임신년壬申年) 11월 5일, 자식들에게 노비와 전답, 그리고 사는 집을 뉘뉘으로 고루 나누어준 각장의 문서는 자필로 친히 써서 주었거니와, 혹시 유실됨이 있을까 걱정되어 다시 한 장에 그 모두를 써서 준다.

장녀인 성균관 진사 최기(崔棄)의 어머니 뉘

사내종 몽동이(蒙同)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능비(能非), 나이 55세.

사들인 계집종 대비(竹非), 나이 60세.

사내종 감손(檢孫)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돌대(石代), 나이 42세.

사들인 사내종 천돌(千石), 나이 43세.

사내종 강금 α (姜金 α) α 째 소생인 계집종 푸지비(豊非), 나이 52세.

사내종 감손(檢孫)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돌비(石非), 나이 50세.

사내종 잣동(栢叱同)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억배기(億福), 나이 34세.

계집종 풍덕(豊德)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푸지개(豊介), 나이 23세.

계집종 감덩이(甘德)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맵지(每邑之), 나이 46세.

계집종 영금(永今)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쉬(秀伊), 나이 40세.

사내종 길만(吉萬)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정대(丁代), 나이 45세.

계집종 검지(檢之)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쇠돌(金石), 나이 39세.

사내종 잣동(栢叱同)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천복(千福), 나이 40세.

같은 계집종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인손(仁孫), 나이 24세.

사내종 진복(進福)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은귀(銀貴), 나이 15세.

사내종 감손(檢孫)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산이(山伊), 나이 40세.

사내종 백년(百年)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도끼잔(斤杯), 나이 39세.

사내종 석송(石松)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작더기(勺德), 나이 36세.

사내종 감손(檢孫)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산동이(山同), 나이 32세.

계집종 영금(永今)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어질이(良伊), 나이 31세.

계집종 맵지(每邑之)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설쇠(雪金伊), 나이 9세.

사내종 백년(百年)의 넷째 소생인 계집종 수배(守杯), 나이 35세.

사들인 계집종 곳덕(末叱德), 나이 34세.

계집종 α 비(α 非)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인수(仁守), 나이 31세.

계집종 정비(丁非)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억배기(億卜), 나이 16세.

계집종 감덩이(甘德)의 다섯째 소생인 계집종 이금(李今), 나이 32세.

계집종 돌비(石非)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업송개(業成介), 나이 24세.

계집종 몽곳(蒙今)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그미(今之), 나이 24세.

계집종 만대(萬代)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춘계(春桂), 나이 21세.

계집종 마기(莫只)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선복(善福), 나이 11세.

계집종 능비(能非)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쇠덕(金德), 나이 13세.

계집종 돌비(石非)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한정(漢丁), 나이 6세.

사내종 쇠돌(金石)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춘문(春文), 나이 8세.

계집종 돌대(石代)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춘덕(春德), 나이 5 세.
 계집종 곳덕(末叱德)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귀복(貴福), 나이 9 세.
 계집종 신복(信福)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질개(長介), 나이 6 세.
 계집종 풍덕(豐德)의 다섯째 소생인 계집종 후덕(後德), 나이 10 세.
 계집종 그미(今之)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정복(鄭福), 나이 2 세.
 사내종 쇠돌(金石)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봄구슬(春玉), 나이 3 세.
 평산(平山)에 사는 계집종 똥금(同叱今), 나이 46 세.
 같은 계집종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똥비(同叱非), 나이 10 세.
 사내종 더듬개(訥介)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더듬지(訥之), 10 세.
 새로 들인 종들은 혹은 죽거나 혹은 도망가서 뒤이은 소생이 없다.
 산 뒤에 있는 채연지(蔡延祉)의 보리 논 18 마지기(斗落只)
 도돌동(都石同)의 논 15 마지기.
 둔전(屯田)에 있는 들판의 ∞ 8 마지기.
 바다리(所橋)에 있는 청비(靑非)의 논 5 마지기.
 못골(池洞)에 있는 이응벽(李應壁)의 논 15 마지기.
 최송(崔松)의 논 3 마지기.
 왕엽정(汪葉亭)에 있는 논 ∞ 마지기.
 고요산(高要山) 앞에 있는 곽만수(郭萬壽)의 논 17마지기.
 동리 앞에 있는 김문(金文)의 논 7 마지기.
 창평(昌平) 땅에 있는 장한소(張漢小)의 논 5 마지기.
 정자 앞에 있는 김세희(金世希)의 논 8 마지기.
 강증(江曾)의 뒤에 있는 서별(徐別)의 논 6 마지기.
 소요(所要) 고개에 있는 곽종인(郭宗仁)의 논 6 마지기.
 창평 땅에 있는 최송(崔松)의 논 8 마지기.
 이훈(李訓)의 밭 9 마지기.
 이증손(李曾孫)의 밭 7 마지기.
 업동이(業伊)의 밭 6 마지기
 둘째 아들인 진원현감 해용(海容)의 처 김씨의 몫
 나이 많은 노부로서 오래도록 패할 계책이 없으므로 많지 않은 노비와 전답, 그리고 사는 집들을 자손들에게 각기 제몫으로 나누어 주거니와, 해용 역시 그의 형 해관(海寬)과 함께 한때 장성하여, 재능과 기예가 조속하여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번갈아 음직(蔭職)을 얻어 벼슬살이를 하다가 겨우 장년에 이르렀으나, 가운이 중도에 막히어 다같이 대를 이을 자손도 없이 요절하고, 이같은 80세의 노부로서 하여금 홀로 인간 세상에 남도록 하여 마침내 기식(寄食)할 곳도 없게 되었으니, 인정과 천지자연의 이치가 극히 딱하게 되어 어찌할 바가 없구나. 이제 아내와 함께 조상의 제사를 의논함에 정과 도리는 부자형제 등의 육친과 같지 않는구나. 해청(海淸)의 아들 덕미(德美)를 해용의 후사를 이을 양자로 삼고, 대 이을 자식 기르는 집에 별도로 신주를 모시는 사당을 세운다. 우리 부부는 몸소 방계(傍系)의 어른이 되어, 사당에 너의 부부도 함께하면 형편에 따라 불천지위(不遷之位)로 영세토록 봉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집안의 뜻으로 일시의 법규를 세우거니와, 아내도 순수한 효심과 지극히 착한 성질로 이 뜻

을 좇아 받드나니, 정성으로 보존함을 한결같이 하여 영구히 전하도록 하라. 만일 사람의 일이 불행하여 덕미에게 후사가 없더라도 우리 자손 가운데서 같은 성씨를 차례에 따라 다시 양자로 세우며, 승중(承重) 쪽의 사는 집 전민(田民)이라도 법식으로 봉사할 사람을 삼는 경우, 오로지 오래 전할 것을 헤아려 제물을 갖추도록 하고, 궁핍함이 없도록 하되, 원래 전민의 수가 적고, 승중 쪽은 약소하니, 아내 측의 전민을 아울러 알맞게 더 주어 영원무궁함을 꾀하는 일이다. ㄱ

사내종 얼마니(蒙萬)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몽곳(蒙今), 나이 60 세.

사들인 계집종 이뿐(李分), 나이 60 세.

사내종 검동이(檢同), 나이 49 세.

사내종 영삼(英三), 나이 53 세.

사내종 강쇠(姜金伊)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강풍(姜豐), 나이 53 세.

사내종 석송(石松)의 첫째 소생 새 사내종 강아지(加知), 나이 47 세.

사내종 쇠강(金伊江) 셋째 소생인 새 계집종 향덕(香德), 나이 46세.

사들인 사내종 후삼(後三), 나이 39 세.

계집종 어질비(良非)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업심(無心), 나이 52 세.

나내종 백년(百年)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만대(萬代), 나이 42 세.

계집종 몽곳(蒙今)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영옥(英玉), 나이 28 세.

계집종 검덩이(甘德)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구슬(玉代), 나이 42 세.

계집종 몽곳(蒙今)의 넷째 소생인 계집종 올봄(今春), 나이 19 세.

사들인 사내종 한세(漢世), 나이 31 세.

사내종 석송(石松)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마기(莫只), 나이 40 세.

사내종 강쇠(姜金伊)의 넷째 소생인 계집종 풍덕(豐德), 나이 40 세.

사내종 감손(檢孫)의 다섯째 소생인 사내종 이세(二世), 나이 28 세.

사내종 쇠강(金伊江) 둘째 소생인 계집종 더질비(加叱非), 나이 39세.

계집종 업심(無心)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추경(秋京), 나이 23 세.

계집종 백네(百禮)의 둘째 소생인 새 계집종 은대(銀代), 나이 37 세.

계집종 음(虫介)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돌지(石乙之), 나이 37 세.

사내종 길만(吉萬)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막대기(莫德), 나이 31 세.

사내종 잣동(栢叱同)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덕복(德福), 나이 24 세.

계집종 매질이(每叱之)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춘개(春介), 나이 11 세.

계집종 마기(莫只)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희곰(喜今), 나이 19 세.

사내종 몽동이(蒙同)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멩계(蒙介), 나이 19 세.

사내종 감손(檢孫)의 다섯째 소생인 사내종 산세(山世), 나이 29 세.

계집종 돌비(石非)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더진개(加進介), 나이 19 세.

계집종 풍덕(豐德)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복견(福堅), 나이 19 세.

계집종 능비(能非)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비개(杯介), 나이 17 세.

사내종 몽동이(蒙同)의 둘째 소생인 몽곳(夢今), 나이 11 세.

계집종 향난(香蘭)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향록(香綠), 나이 9 세.

계집종 더질비(加叱非)의 둘째 소생 사내종 바리동(件里同), 나이 9 세.

계집종 마기(莫只)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돌복(石福), 나이 6 세.
 계집종 풍덕(豊德)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후견(後堅), 나이 13 세.
 계집종 풍덕(豊德)의 넷째 소생인 계집종 선덕이(先德), 나이 ∞ 세.
 사내종 근세(謹世)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돗이(彌伊), 나이 7세.
 계집종 춘개(春介)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모새(木世), 나이 2 세.
 계집종 더질비(加叱非)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마금(莫今), 나이 5 세.
 사내종 강풍(姜豊)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막내(莫乃), 나이 2 세.
 새 노비와 달리 얻은 뒤의 소생은 거론하지 말기로 하였으니, 다른 예에 의해 확실히 거느리고 사용할
 일이다. ㄱ

대추리(大初里) 아래에 있는 김영(金恬)의 논 8 마지기.
 뱀못(蛇池) 아래에 있는 맨 끝의 논 15 마지기.
 서말(庶末)의 논 물가에 위치한 것과 함께 12 마지기.
 창평 땅에 있는 장한(張翰)의 논 9 마지기.
 정자 앞에 있는 곽자성(郭子成)의 논 6 마지기.
 집 앞에 있는 서연명(徐延明)의 논 5 마지기.
 강증(江曾)의 논 20 마지기.
 고요산(高要山) 앞에 있는 곽만수(郭萬壽)의 논 9 마지기.
 집 앞에 있는 전대성(田大成)의 논 10 마지기.
 못골(池洞) 앞에 있는 마침이(終伊)의 논 10 마지기.
 고을 안에 있는 조관(趙寬)의 논 5 마지기.
 두엄(豆許末)의 논 3 마지기.
 고자원(高子院)에 있는 소경소(小經所)의 논 7 마지기.
 정자 앞 군수(羣水)의 밭 5마지기.
 최순형(崔順亨)의 밭 4 마지기.
 창평 땅에 있는 임정가(林井加)의 한밭 14 마지기.
 면양정사(俛仰亭畬)의 서당과 아울러 10여 칸, 전후좌우의 죽림과 송림까지 포함시킨다.
 승중(承重)의 뚝.
 대를 있는 자식 기를 기와집(只瓦家) 60여 칸과 좌우전후 대전(代田) 및 송림.
 사내종 진복(進福)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부귀((富貴), 나이 18 세.
 계집종 감덕이(甘德)의 다섯째 소생 사내종 곳쇠(末叱金), 나이 25 세.
 계집종 난금(蘭金)의 넷째 소생인 사내종 곳치(末叱致), 나이 19 세.
 사내종 텃지둥(毛叱柱)의 둘째 소생 계집종 낸금(內隱今), 나이 19 세.
 계집종 풍덕(豊德)의 넷째 소생인 계집종 바리개(件里介), 나이 11 세.
 계집종 털덩이(毛德)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돌비(石乙非), 나이 20 세.
 계집종 희꿈(喜今)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계능(啓能), 나이 12 세.
 버드나무 아래 채연지(蔡延祉)의 논 10 마지기.
 뱀못(蛇池) 아래 조근종(趙斤從)의 논 13 마지기.
 정자 앞에 있는 백세(百世)의 논 5 마지기.

고을 안에 있는 주척배(朱則倍)의 논 4 마지기.

정자 앞에 있는 이증손(李曾孫)의 논 13 마지기. ㄱ

아들 해청(海淸)의 몫

자식들에게 사는 집과 노비, 그리고 전답 등을 고르게 나누어주는 문서는 친히 자필하여 써준 기록이다. 또한 전에 친히 얻은 후의 소생은 거론하지 아니 하거니와, 아울러 자손들은 법을 받아 유지하고 농사 지어 살아가되, 함께 살아가는 동안 사는 집과 전민을 구별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후신(後身)도 없이 죽게 되거든 함께 살아감을 달리하지 마라. 각기 어머니를 같이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에 고르게 나누어 지키도록 하는 일이다.

계집종 검덩이(甘德)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맏덕(每邑德), 나이 51 세.

계집종 중개(仲介)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천년(千年), 나이 49 세.

계집종 맏덕(每邑德)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춘화(春花), 나이 31 세.

계집종 수대(水代)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경춘(庚春), 나이 23 세.

계집종 맏지(每邑之)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헛금(許叱今), 나이 11 세.

계집종 봉화(奉化)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만진(萬眞), 나이 14 세.

사내종 영삼(英三)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더듬기(訥只), 나이 4 세.

시령굴(世龍仇스)에 있는 이영수(李永壽)의 논 5 마지기.

잔굴(自隱仇스)에 있는 나동래(스同來)의 논 5 마지기)

대추리(大初里)에 있는 억새(億世)의 논 7 마지기.

왕세곤(王世昆)의 논 7 마지기.

새뭇 아래에 있는 김천년(金千年)의 논 한 마지기.

김오준(金五俊)의 논 2 마지기.

버드나무 아래에 있는 최신종(崔信宗)의 논 2 마지기.

김동수(金同水)의 족림 아래 분외(分山)의 논 2 마지기.

고을 안에 나아가는 문 앞에 있는 억새(億世)의 논 8 마지기.

못골(池洞)에 있는 이용(李蓉)의 밭 콩 종자 7 마지기.

너에게 덧붙여서 주는 계집종 쇠덩이(金伊德), 나이 44세.

같은 계집종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흥세(欣世), 나이 15 세.

둘째 소생인 계집종 흥개(欣介), 나이 10 세.

사내종 돌만이(石只), 나이 45 세.

계집종 심심이(淡伊), 나이 44 세.

새뭇 아래에 있는 억새(億世) 등의 논 12 마지기.

차서지(遮西池) 아래에 있는 신보(申甫)의 논 7 마지기.

잔굴(自隱仇스)의 우음내(于音來)에 있는 논 4마지기.

샘실(泉谷) 앞에 있는 채생원(蔡生員)의 논 4 마지기.

남산(南山)의 앞에 있는 서극감(徐克甘)의 밭 3 마지기.

못골(池洞)에 있는 문언상(文彦祥)의 논과 번전의 콩 종자 6 마지기.

서연명(徐延明)과 쇠강(金伊江)의 밭, 아울러 콩 종자 3 마지기.

살고 있는 곳 기와집 30 칸과 전후의 대전(代田), 아울러 콩 종자 8 마지기.

승중(承重)의 몫.

계집종 더질비(加叱非)의 9째 소생인 계집종 바리덕(件里德), 나이 13세

계집종 헌년(古非)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선쇠(善金伊), 나이 18 세.

대추리(大初里) 앞에 있는 김성벽(金成璧)의 논 8 마지기. ㄱ

아들 해징(海澄)의 몫.

계집종 감덩이(甘德)이 다섯째 소생 사내종 이도리(李石), 나이 37 세.

계집종 헌년(古非), 나이 39 세.

사내종 도끼(斤伊)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한복(大福), 나이 17세.

같은 사내종 넷째 소생인 계집종 유덕(有德), 나이 12 세.

계집종 향난(香蘭)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향금(香今), 나이 12 세.

계집종 영대(英代)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백이(百伊), 나이 22 세.

사내종 영삼(英三)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죽사리(注叱沙里), 나이 9 세.

고을 안 심술머리(心通毛老)의 논 8 마지기.

김근(金謹)의 집 앞에 있는 분외(分山)의 논 4 마지기.

새뭇 아래에 있는 문언상(文彦祥)과 김천년(金千年)의 논 12 마지기.

정세량(鄭世良)의 논 3 마지기.

담사리(多勿沙里)의 논 5 마지기.

고을 안 누문(樓門)의 앞에 있는 인손(仁孫)의 논 7 마지기.

화자(化字)의 대전(代田) 콩 종자 2 마지기.

못골(池洞)에 있는 최세붕(崔世鵬)의 밭 6 마지기.

옛내(古川)에 있는 밭 3 마지기.

남산(南山)에 있는 작은 밭 두 곳집과 아울러 3 마지기.

너의 처자 측의 사내종 도산(道山), 나이 60 세.

같은 사내종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귀대(貴代), 나이 20 세.

계집종 순대(順代) 나이 53 세.

같은 계집종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연화(烟花), 나이 28 세.

계집종 보배내(寶川), 나이 42 세.

같은 계집종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목해(陳海), 나이 24 세.

새뭇 아래에 있는 이덕세(李德世)의 논 7 마지기.

한호명(韓好命)의 논 6 마지기.

흥다리 굴(乎音橋九스)에 있는 논 4 마지기.

못골(池洞)에 있는 김인수(金仁守)의 논 4 마지기.

절골(寺洞)에 있는 천자(千字)의 논 2 마지기.

샘실(泉谷)의 앞에 있는 채생원(蔡生員)의 논 3 마지기.

새뭇 아래에 있는 삼준(三俊)의 밭 2 마지기.

밭은 넉넉하지 못하여 옛 물골(本無里洞)에 있는 논 5 마지기.

살고 있는 곳 기와집, 그리고 앞뒤 대전(代田)과 죽림은 스스로 갖춘 너의 자비지물인 것으로서 나누어 줄 몫에 붙이지 아니 하였다. ㄱ

신당수(申聘壽) 처의 몫

계집종 수대(水代)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갑춘(甲春), 나이 29 세.

사내종 도끼(斤伊)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수복(壽福), 나이 32 세.

계집종 수대(水代)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복수(福壽), 나이 33 세.

사내종 팽이(彭伊)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설운비(雪非), 나이 26 세.

사내종 진복(進福)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은금(銀今), 나이 13 세.

계집종 만대(萬代)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춘쇠(春金伊), 나이 17 세.

사인교(舍人橋) 아래에 있는 인손(仁孫)의 논 9 마지기.

정자리(亭子里) 앞에 있는 김네손(金禮孫)의 논 5 마지기.

큰 집 정자 앞에 있는 번답(反畓), 여섯 배미 4 마지기.

차서지(遮西池) 아래 계동(戒洞)에 있는 논 8 마지기.

같은 못 아래에 있는 김오준(金五俊)의 논 4 마지기.

가라실내(可羅谷來)에 있는 둔전(屯田) 들논 8 마지기.

물골(無里洞)에 있는 밭 콩 종자 7 마지기.

배세평(裴世平)의 집 앞에 있는 은해(銀海)의 논 5 마지기.

기와집 37 칸과 대전(代田) 앞뒤 아울러 5 마지기.

너의 어머니 측 계집종 산비(山非), 나이 41 세.

계집종 봉화(奉化)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업개(業介), 나이 16 세.

분수에 넉넉지 못하여 옛 계집종 사랑개(思郎介)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쌍이(雙伊), 나이 30 세.

같은 계집종 첫째 소생인 사내종 명장(命長), 나이 6 세.

계집종 구월(九月)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즉백(卽百), 나이 10 세.

뱀못(蛇池) 아래에 있는 쇠메(金野)의 논 6 마지기.

금배(仇萬倍)의 논 7 마지기.

차서지(遮西池)의 돌다리 위쪽에 있는 논 8 마지기.

샘실(泉谷) 앞에 있는 채생원(蔡生員)의 논 2 마지기.

둔전(屯田) 들에 있는 논 2 마지기.

윗집의 앞에 있는 복수(福壽)의 논 2 마지기.

밭이 넉넉지 못하여 옛 물골(無里洞)에 있는 논 4 마지기. ㄱ

첩이 낳은 아들 해원(海源)의 몫

사내종 은돌(恩石)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국화(菊花), 나이 28 세.

사내종 도끼(都致), 나이 29 세.

계집종 한금(漢今), 나이 36 세.

계집종 만대(萬代)의 넷째 소생인 사내종 춘복(春福), 나이 14 세.

계집종 구슬(玉代)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은개(銀介), 나이 9 세.

계집종 미대(美代)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숲대(林代), 나이 19 세.

이훈(李訓)의 논 9 마지기.

정자 앞에 있는 곽천성(郭千成)의 논 3 마지기.

고을 안에 있는 전윤량(田允良)의 논 3 마지기.

둔전(屯田)들에 있는 전장(田張)의 논 7 마지기.
이세응(李世應)의 논 3 마지기.
흥다리(乎音橋)에 있는 은해(銀海)의 논 8 마지기.
창평(昌平)의 개동리(開同里)에 있는 이도고(李道古)의 논 6 마지기.
대교(大橋) 위쪽에 있는 윤돌(允石)의 논 4 마지기.
집의 대전(代田)과 죽림의 밭 아울러 5 마지기.
너의 어머니 측의 사내종 손동이(孫同), 나이 49 세.
같은 사내종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강손(姜孫), 나이 13 세.
둘째 소생인 계집종 마개(莫介), 나이 10 세.
계집종 은대(銀代), 나이 53 세
같은 계집종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도리(環伊), 나이 20 세.
계집종 일대(一代), 나이 42 세.
같은 계집종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한개(一介), 나이 15 세.
둘째 소생인 계집종 일정(一定), 나이 11 세. 셋째 소생인 계집종 일춘(一春), 나이 8 세.
계집종 마침이(終伊), 나이 63 세.
같은 계집종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억수(億壽), 나이 30 세.
사내종 쇠미(金山), 나이 53 세.
같은 사내종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망구지(命仇知), 나이 32 세.
둘째 소생인 사내종 막외(莫山), 나이 19 세.
사내종 망구지(命仇知)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명외(命山), 나이 10 세.
계집종 돌비(石乙非), 나이 34 세.
같은 계집종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기년(奇連代), 나이 6 세.
계집종 은개(銀介)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예손(禮孫), 나이 19 세.
둘째 소생인 계집종 지겁덩이(知劫德), 나이 7 세.
사내종 어질이(良伊)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늑동(仍邑同), 나이 30 세.
사내종 감쇠(甘金伊) 첫째 소생인 계집종 춘금(春今), 나이 18 세.
국자평(鞠自平)의 논 10 마지기.
창평(昌平) 고을 안에 있는 황순화(黃順化)의 집 앞 논 7 마지기.
시루바위 앞에 있는 논 12 마지기.
사는 집은 스스로 갖춘 자비지물(自備之物)이므로 뒷에 붙이지 않는다.
첩이 낳은 아들 지번(支繁)의 뒤
사내종 섬돌꾼(除軍), 나이 46 세.
같은 사내종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군비(軍非), 나이 16 세.
계집종 봉화(奉化)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애정(愛丁), 나이 9 세.
섬돌꾼(除軍)을 맞이한 뒤에 소생한 세 식구는 예득(例得)으로 거론하지 않는다.
절골(寺洞) 밭에 있는 논 13 마지기.
흥다리(乎音橋)에 있는 계륜(戒倫)의 논 8 마지기.
이영수(李永壽)의 밭 2 마지기.

장문(場門)에 있는 발 3 마지기. ㄱ

지장(支長)의 몫

사내종 은돌(恩石)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만화(萬花), 나이 33 세.

같은 계집종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평개(平介), 나이 11 세.

계집종 봉화(奉化), 나이 35 세.

절골(寺洞)에 있는 녘돌(廣石)의 논 8 마지기.

국은효(鞠銀孝)의 논 4 마지기.

이수량(李守良)의 논 3 마지기.

옛내(古川)에 있는 논 5 마지기.

영산정(靈山亭) 앞에 있는 윤돌(允石)의 밭 2 마지기.

장문(場門)에 있는 밭 3 마지기. ㄱ

아비인 자헌대부(資憲大夫), 전에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겸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였던 송(宋)

▽이 손수 쓴 자필(自筆)이다.

증참(證參) 송해빈(宋海賓) ▽

송해우(宋海宇) ▽

진익신(陳翼臣) ▽

설운룡(薛雲龍) ▽

[각주]

- 1) 원문(原文) : 줄글로 된 분재기 원전을 해독의 편의를 위해 구절 단위로 띄어 옮긴다. 원문에 나타난 이두문(吏讀文)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인명, 지명, 물명에 대한 설명을 각주에 덧붙인다.
- 2) 隆慶(응경) : 중국 명나라 목종(穆宗) 때의 연호, 1567~1572.
- 3) 等亦中(들여히) : ~들에게, ~등에게.
- 4) 等乙(들을) : ~등을, ~따위를, ~들을.
- 5) 分給(분급) : 몫으로 나누어 주는 것.
- 6) 文記(문기) : 땅, 집 등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어떤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文書). 문권(文券).
- 7) 爲在果(ㅎ거과) : ~하거니와, ~한 것과.
- 8) 良中(아히) : ~에, ~에게(처격조사)
- 9) 爲臥乎事(하누온 일) : ~하는 일.
- 10) 衿(깃) : 무엇을 나눌 때에 자기 앞으로 돌아오는 몫.
- 11) 蒙同(몽동) : 몽둥. 몽둥이(사람 또는 짐승을 때릴 때에 쓰는 막대기)에 비유해서 호칭한 사내종 이름의 음차 표기(音借表記)이다. 노비명(奴婢名) 가운데 蒙同伊(몽동이), 夢同伊(몽동이), 蒙唐伊(몽당이)---- 등은 같은 계열의 한자 차자 인명(借字人名)이다. 뒤 음절의 “~同”은 인명 접미사(接尾辭)로 흔히 쓰는 “~동”의 차자 표기인데, 위에 든 노비명의 예로 보아 접미사 “~동이”를 차자 표기한 “~同伊”의 준말 표기인 셈이다. (다음의 주 38, 42, 43)
- 12) 能非(능비) : 일에 능하거나 넉넉함이 있는 계집종을 일러 음차한 이름이다. “~非”는 同叱非, 古非, 豊非, 竹非, 良非----등, 주로 여비명(女婢名)의 접미사에 빈도 높게 차용되었던 표기이다. (다음의 주 51, 129, 146 참조)
- 13) 竹非(죽비) : 대비. 가는 댓가지나 잘게 찌꺼 대오리를 엮어 만든 대비에 비유하여 호칭된 계집종 이름의 훈, 음차(訓, 音借) 표기이다. “~非”는 곧 계집종의 인명에 관용(慣用)되던 여성 인칭접미사(女性人稱接尾辭)의 표기를 겸한 셈이다. (주 12 참조)
- 14) 檢孫(검손) : 감손. 검다(黑), 또는 감다(밝게 검다)는 말에서 연유한 음차자명(音借字名)이다. 살빛이 검은 사람, 즉 검둥이를 이른다. 같은 계열의 노비명에 檢孫, 檢同, 檢之---등이 있고, ㅏ와 ㅑ의 모음교체, 또는 이에 대한 변이음(變異音) 차자표기로 甘德, 甘金伊 등의 노비명 표기도 있다. (다음 주 120 참조) 또한 뒤 음절(後音節)에 보인 “손”은 원래 손아랫사람을 일컬을 때, “사람”보다는 낮추고, “자”보다는 좀 대접하여 쓰는 말이다. 이로 인해 노
- 15) 石代(석대) : 돌대. 돌처럼 단단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이르는 데서 연유한 계집종 이름의 차자 표기이다. “代”는 흔히 인명 접미사로 쓰였던 한자 차용 표기로서 銀代, 責代, 玉代----등 인명에 차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한자이다. 때에 따라서는 일상어에서 상대방을 알잡아 지칭하는 “년”이나 “놈”의 경우까지 대용되어 쓰이기도 한 차자 표기이다.
- 16) 千石(천석) : 천돌. 천한 돌덩이란 뜻에서 음훈차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천명(賤名)이 오히려 복이 되고 장수한다는 데서 나온 작명 의식(作名意識)의 반영이다. “千”은 千字, 千吉, 千福---- 등의 이름에서처럼 많음을 뜻하는 숫자 의식(數字意識)으로 말미암은 작명으로도 볼 수 있으나 속단하기 어렵다. 한편 뒤 음절의 “石”은 노비명의 접두사 또는 접미사에 두루 차자되던 한자이다. 노비명 石乙非, 石乙之, 水石乙, 順石乙----등에 보인 “石乙”과 같이 2자 1음절로
- 17) ∞ : 원전의 글자가 흐려서 판독하기 어려운 곳의 표시이다. 이하 모두 이와 같다.

- 18) 豊非(풍비) : 푸짐, 푸지비. 푸지고 넉넉하다는 데서 음훈 혼용으로 차자된 계집종의 이름이다. “푸지다”(많고 넉넉하다)의 어간을 “豊”으로 차자하고, 거기에 인명 접미사로 관용하는 “~非”를 첨기한 표기이다. 豊介, 豊徳, 豊年, 豊山----등은 같은 계열의 노비명이다.
- 19) 石非(석비) : 돌비. 앞에 든 “石代”와 같은 계열의 계집종 이름이다. 뒤 음절에 쓰인 ~非, ~代 등은 인명 접미사로서, 후자는 특히 여성명에 관용된 대표적 차자이다. (앞의 주 12, 15, 16 참조)
- 20) 栢叱同(백질동) : 잣동. 변질이 없음을 표상하는 식물, 잣(栢)을 3자 2음절로 차자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종래 사잇소리 “ㅅ”의 차자로 많이 쓰이던 “叱”을 앞 음절의 종성에 첨기한 표기형이다. 말음절의 “同”은 접미사 “~동이”(어떤 특질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또는 훌륭하게 이르는 말)의 차자로서 인명 접미사에 흔히 차용되는 표기이다. 이를 2자로 차자한 “同伊”도 노비명에서 흔히 발견되는데, 이때의 “伊”는 선음절 종성의 자연적인 발음의 차자표기이다. (주 11,
- 21) 億福(억복) : 억백, 억배기. 억빠기(얼굴에 얽은 자국이 많은 사람, 공보), 억박억박, 억벽억벽(얼굴에 굵고 깊게 얽은 자국이 뻗 모양) 등의 음차로 연유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인명 차자에 나오는 億卜, 億朴, 億朴伊, 億福伊 ----등도 같은 계열의 노비명이다. (다음의 주 52 참조)
- 22) 豊徳(풍덕) : 풍덕. “풍덕하다”(넉넉하다)의 어간을 음차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앞에 든 “豊非”와 동궤(同軌)의 차자표기이다. 후음절의 “徳”은 인명 접미사로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곳에서는 金徳, 金伊徳의 노비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덕(~덩이)”의 음차이다. (주 18 24, 64 참조)
- 23) 豊介(풍개) : 푸짐, 푸지개. 앞에 든 “豊非”와 같은 계열의 계집종 이름이다. 후음절에 나오는 “介”는 접미사 “~개”의 차자로서, 주로 도구나 물건을 나타낼 때, 또는 어떤 사람임을 훌륭하게, 또는 예사롭게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 인명으로는 蒙介, 舍廊介, 銀介, 春介, 業成介 등 여성 인명 접미사에서 흔하게 보는 차자 표기이다. 한편, 사냥꾼의 “푸지개”(푸나무로 엮어 만든 제 몸을 감추는 기구)에 비유하여 부끄러워 움츠리기만 하고 잘 나타나지 않는 계집종 이름
- 24) 甘徳(감덕) : 감덩이, 검덕, 검덩이. 얼굴이나 살결이 검은 데서 연유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형용사 “검다”(黑)는 구어(口語)의 쓰임에 따라 감다, 검다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儉孫, 檢孫, 檢同, 甘徳, 甘金伊, 姜孫----등의 노비명에서 첫 글자는 모두 이같은 구어의 감, 검, 깡, 꺾 등의 음차자가 된다. 또한 위의 노비명에 보인 同, 徳은 민간 구어의 검둥이, 깡둥이, 검둥이, 감덩이, 검덩이, 꺾덩이 등에서 보는 접사 “~동이, ~동이, ~덩이”(어떤 특징
- 25) 每邑之(매읍지) : 맵지. “맵다”(알알하고 따갑다. 몹시 차갑고 알알하다. 사납고 모질다.), 또는 “맵살스럽다.”(남에게 미움을 받을만한 데가 있다.)는 뜻에서 연유한 음차 표기의 계집종 이름이다. 每邑徳, 每邑同, 每邑山----등은 같은 계열의 노비명인데, “每邑”은 2자 1음절 구성의 선음절 표기이다. “之”는 檢之, 今之, 訥之, 石之----등의 이름에서와 같이 뒤 음절에 차용(借用)되었던 인명 접미사이다. (주 58 참조)
- 26) 永今(영금) : 목숨이 길기를 바라는 뜻에서 음차 표기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今”은 金今, 春今, 漢今, 香今----등에서와 같이 인명 접미사로 관용(慣用)되었던 뒤 음절의 음차 표기이다.
- 27) 秀伊(수이) : 쉬. 천한 것에 비유한 호칭으로서, 오히려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관념에서 파리 알을 가리키는 “쉬”, 또는 곡식이 열리는 풀을 지칭하는 “쉬”의 음차 표기로 볼 수 있는 사내종 이름이다. 뒤 음절의 “伊”는 주로 인명 접미사의 차용으로서 종성어(終聲語) 아래에서 연음절(連音節)의 독립형으로 표기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서는 2자 1음절 형성으로 된 조자(造字) 형식의 음차 표기이다. 金伊江, 善金伊, 春金伊, 愁伊----등의 인명에서 보는 “金伊”(쇠),

28) 吉萬(길만) : 길상하기만 바라는 뜻으로 호칭된 사내종 이름의 차자 표기이다. 인명에 다용(多用)되어 온 한자 “萬”이 앞 음절에서는 萬化, 萬代, 萬金----등의 이름에서와 같이 주로 “많음”을 지시하는 수 개념(數概念)의 차자였으나, 뒤 음절에서는 蒙萬, 古萬의 이름에서와 같이 주로 의미 보조를 위한 음차표기로 나타난다. “吉萬”의 “萬” 역시 어느 것에만 한정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서, 앞 음절의 차자 “吉”에 후속시킨 접미사의 음차자이다. (위의 주 59, 117)

29) 丁代(정대) : 인명에는 민속어(民俗語) 가운데 십간(十干)의 각 글자를 내세워 호칭한 경우가 적지 않다. 甲吉, 乙年, 丙金, 丁非----등의 이름에서 두음절(頭音節)의 쓰임이 그러하다. “丁”은 십간의 차례에서 넷째에 해당하고, 오행(五行)으로 화(火)에 속하며, 방향으로는 남(南)을 가리키므로, 작명에도 이러한 민속적 관념의 어느 요소가 전제되었을 법하다. 또한 “代”는 앞에서 소개한 “石代”와 같은 계열의 인명 접미사이다. (주 15 참조)

30) 檢之(검지) : “검다”(黑)의 어휘에서 연유한 계집종 이름의 표기이다. 앞에 든 “檢孫”의 이름과 동계의 음차 표기인데, 뒤 음절의 “之,”는 인명의 접미사 표기에서 흔히 보는 음차자이다. (주 25, 58 참조)

31) 金石(금석) : 쇠돌. 쇠(金)와 돌(石)처럼 단단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훈차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노비명에서 흔히 보는 “金”과 “石”의 차용은 주로 앞 음절로 쓰일 때 이같은 의미를 함유하고, 훈차 의식의 쇠퇴로 그 뜻이 거의 희석되거나 감추어져, 주로 접미사의 음차 표기로 관용하되, 여성명의 접미사로의 차자가 “~今”임에 대하여, “~金)은 남성명 접미사였음이 그 특색이다. 한편, “金石”은 쇠붙이의 성분이 들어있는 광석을 뜻하는 “쇠

32) 栢叱同(백질동) : 잣동. (앞의 주 20 참조)

33) 千福(천복) : 많은 복을 뜻한 것으로 호칭한 계집종의 이름으로 보인다. “千”은 노비명 중에서 “萬” 다음으로 많이 쓰이던 수 개념의 숫자이고, “福”은 大福, 壽福, 春福, 德福----등에서와 같이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 “德”과 함께 노비명에서 많이 쓰는 인명 접미사의 차용자이다.

34) 仁孫(인손) : 한자 “仁”(어질 인)의 뜻을 담아 음차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노비명에는 인, 의, 예, 지, 신(仁義禮智信} 등 오상(五常)에 드는 각 글자의 의미를 담고자 하여, 이에 드는 한자를 작명으로 인용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 가운데 “禮”의 차용이 으뜸이요, 다음은 “仁”이다. 어질고 착하여 사람됨의 근본으로 덕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뜻의 반영이다. 아울러 후음절의 “孫”은 주로 남성명에서 보는 인명 접미사의 차자표기이다. (주 14 참조)

35) 進福(진복) : 복이 나아오고 더하기를 위한 뜻에서 호칭한 사내종 이름의 음차 표기이다. 후음절의 “福”은 앞에 든 “千福”의 경우와 같이 인명 접미사로 쓰인 말의 차자 표기이다. (주 33 참조)

36) 銀貴(은귀) : 금은보배처럼 귀하게 여긴 데서 말미암은 음차 표기의 사내종 이름이다. 노비명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보배라는 관념으로 차자된 대표적인 한자는 金, 銀, 玉 등인데, “玉”의 차용이 으뜸이고, 다음은 銀代, 銀介, 銀今, 銀德----등의 이름에서 보는 “銀”의 차용이다. 한자 “金”의 차용 빈도는 위의 양자보다 훨씬 우세하기는 하지만, 보배라는 의식에서보다 단순히 인명 접미사로서 관용되었을 뿐이다.

37) 檢孫(검손) : 감손. (앞의 주 14 참조)

38) 山伊(산이) : 십장생(十長生)의 하나로 일컫는 “山”의 한자를 차용하여 산처럼 든든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차자 표기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39) 百年(백년) : 한자어의 의미 그대로 백세까지 오래 장수하기를 원하는 뜻을 담아 호칭한 음차 표기

의 사내종 이름이다. 百伊, 百世, 百齡-----등 인명에 비교적 많이 쓰이는 수 개념의 인명 차자이다. 뒤 음절의 “年” 역시 “나이”를 뜻한 한자의 음차로서 앞에 든 “世, 齡”과 같은 작명 의식의 반영이라 하겠다. (주 149, 272 참조)

40) 斤杯(근배) : 도끼잔. 한자 “斤”(도끼 근)과 “杯”(술잔 배)의 훈을 빌어서 여자의 호칭으로 차자한 계집종의 이름으로 보인다.

41) 石松(석송) : 이는 산기슭 양지바른 곳에서 가늘고 긴 줄기를 뺏으며, 잎이 뽀뽀하게 붙어 자라는 식물이다. 상록의 다년생 식물이라는 점에서 길명 의식(吉名意識)의 반영으로 그 이름을 그대로 음차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42) 勺德(작덕) : 작더기, 작덩이, 짝대, 짝대기. 대상을 천시하여 가볍게 여기는 작명 의식에서, 긴 막대기를 뜻한 “작대기”를 음차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爵大”라 한 이름과 동계의 인명 차자 표기이다. 구어의 호칭으로서 “작덕이(勺德伊)”를 전제한다면 이는 “伊”의 생략형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뒤 음절의 “德”은 작명에 관용되던 대표적인 차자인데, 여기서는 가늘고 긴 막대기를 이르는 “대”의 음차자이다. (주 22, 38, 127 참조)

43) 山同(산동) : 산둥이, 산둥이. 두메산골에서 자란 아이, “산동”(山童)에서 말미암은 음차표기의 사내종 이름이다. 또한 남성의 인명 접미사에서 흔히 차용되는 접미사는 ~同, ~童, ~男 등인데, 同과 童은 서로 호용되므로 “山同”과 “山童” 역시 동일시되는 인명 차자로 풀이된다. 그러나 “~同”은 일상의 구어에서 연음화되어 나타나는 “~同伊”로 발전하여 관용된 점이 특이하다. 이때의 표기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을 홀하게 이르는 인명 접미사 “~둥이”의 차자인 것이다

44) 永今(영금) : (주 26 참조)

45) 良伊(양이) : 어질이, 어지리. “어질다(良)”의 어간에 접미사 “~伊”를 덧붙여 어진 사람이란 뜻을 담아 표기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뒤 음절의 “伊”는 인명 접미사로 음차되어 관용한 예이다. “어질다”는 뜻의 표방으로 이루어진 인명에는 “良”(어질 량)을 훈차한 良介, 良女, 良孫-----등과 “仁”(어질 인)을 훈차한 仁介, 仁男, 仁孫-----등이 있고, 단순한 음차로서 於眞, 於辰, 또는 於叱介, 於叱男 등 다양한 인명의 차자 표기가 있다 (주 34, 38 참조)

46) 每邑之(매읍지) : 맵지. (주 25 참조)

47) 雪金伊(설금이) : 설쇠. “애(哀)”의 뜻으로 통용되는 서럽다, 설다, 섣다 등의 어간을 한자 雪(눈 설)로 음차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雪非, 雪禮, 雪云, 雪云德 등의 이름은 동계의 차자명이다. 노비들의 애처로운 처지가 반영된 호칭이라 하겠다. 雪禮와 雪云禮, 또는 雪德과 雪云德이 노비명에 공존하는 것으로 미루어 “雪云金伊”의 표기도 상상할 수 있으나, 4자의 긴 인명의 표기보다 “雪金伊”로의 표기가 더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金伊”는 한자 “金”(쇠 금)

48) 守杯(수배) : 지조나 정조를 지킨다는 뜻을 담아 독음 그대로 차용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노비명에서 한자 “守”(지킬 수)는 접두어, 또는 접미어 할 것 없이 두루 관용된 차자이다.

49) 末叱德(말질덕) : 굿덕, 꺾덕. 그만 날고 그치기를 바라는 데에서 훈, 음차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종래 “叱”이 사잇소리, 또는 선음절의 종성으로 관용된 점으로 미루어 “末叱”은 “꺾”, 또는 “맛”의 두 가지 표기로 풀이되는데, 작명의 취지에 의하면 “末(끝 말)”의 훈을 영두해서 전자를 취했을 것이 더 타당하다. “叱”의 표기를 생략한 “末德” 역시 “꺾덕”의 차자 표기임은 물론이다. 노비명에 末金과 末叱金, 末禮와 末叱禮, 末順과 末叱順 등 그 용례가 수다하게 있음

50) 仁守(인수) : 한자 “仁”(어질 인)의 훈을 좇아 작명한 “仁孫”과 같은 계열의 사내종의 이름이다. 인

명에서의 “守”(지킬 수)는 접두어에서 주로 혼차되어 왔지만, 이에 못지않게 접미사로도 관용되어 왔다. 이때는 그 뜻이 희석되어 흔히 앞의 의미를 이어받아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음차되었다. (주 34, 48 참조)

51) 丁非(정비) : 앞에 든 “丁代”라 한 노비명과 같이 민속상의 관념에서 십간 중 넷째로 드는 “丁”을 취하여 음차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생각건대 넷째로 출생한 딸이라는 데서 호칭된 이름인 듯하다. 아울러 후음절의 “非”는 노비명 가운데 접미사로 쓰인 대표적인 차자로서 거의 여비(女婢)의 이름에 전용된 특색 있는 인명 차용자이다. (주 12, 29 참조)

52) 億卜(억복) : 억배기, 억빠기. 앞에 든 노비명, “億福”과 같은 계열의 사내종의 이름이다. “卜”과 “福”은 동음이자(同音異字)로서 종 이름의 접미사에 높은 빈도로 차용된 표기이다. 貴福과 貴卜, 大福과 大卜, 德福과 德卜-----등은 노비의 이름에 공용된 그 일부의 예이다. (주 21 참조)

53) 甘德(감덕) : 감덩이. (주 24 참조)

54) 李今(이금) : 한자 “李”(오얏 리)의 음차자로 작명된 계집종의 이름이다. 李金, 李代, 李同, 李丹-----등은 접미사의 표음만 달리 하였을 뿐 같은 계열의 노비명이다. 따라서 “~今”은 銀今, 永今, 春今, 香今, 同叱今-----등 차용 빈도가 높은 인명 접미사의 대표적인 차용자이다. 동음이자인 “~金”과도 호용하는 등 인명 접미사로서의 용례는 다양하지만, “~今”은 특히 여성명에 관용된 차자임을 알 수 있다. (주 47, 206, 237 참조)

55) 石非(석비) : 돌비. 돌처럼 단단하고 야무지다는 데서 “石”(돌 석)을 혼차하고, 여성 인명 접미사로 다용되는 “~非”를 덧붙인 계집종의 이름이다. 인명의 차자에서 유별나게 많은 “石”에 대한 혼차는 단 순히 그 한 자로의 표기보다 “石乙”로의 2자 표기가 한층 우세하다. 노비명의 접미사 용례만 보더라도 廣石과 廣石乙, 金石과 金石乙, 山石과 山石乙-----등 수다하게 들 수 있다. 후음절의 “~非” 역시 앞에 든 能非, 豐非, 丁非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인명의

56) 業成介(업성개) : 업송개. 하는 짓이 변변하지 못한 사람을 조롱하여 일컫는 “어송이”에서 접사(接辭) “~이”를 인명 접미사에 관용하는 “~介”로 대신하여 음차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介”는 앞에 든 “山伊”의 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은 “~伊”와 동계열의 접미사이다. (주 23, 38 참조)

57) 蒙今(몽금) : 몽긋, 몽긋. 무슨 일에 신속하지 않고 주저대며 몽긋거리리는 사람을 염두하여, “몽긋”, 또는 방언의 “몽금”을 음차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몽긋”은 즉 “몽긋거리다”(나아가는 시늉으로 앉아서 비비대다)의 어간이며, 부사형인 “몽긋몽긋”은 남도 방언에서 “몽금몽금”이라고도 이른다. 여기서는 그 후음절의 독음을 이와 유사한 인명 접미사 “今”으로 차용한 예이다. 국어의 한자음에는 “긋”이 없으므로 이를 음차하려 할 때, 여성명의 접미사로 가장 대표적인 “今

58) 今之(금지) : 그미. 인간의 구어에는 상대방을 헐하게, 또는 친근하게 지칭하면서 쓰는 “그미”라는 말이 있다. “그 애”라 함을 대신하여 이른 어휘이다. 노비명에 “今伊”는 그 “그미”의 음차이고, 그 유사형의 표기가 “今之”이다. 즉 “그미”를 약칭으로 차자한 “今”에 인명 접미사 “~之”를 첨가시킨 차자가 계집종의 호칭이 되어 “今之”라 한 이름을 연유시켰다 하겠다.

59) 萬代(만대) : 오래도록 장수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자의 독음 그대로 음차 표기(音借表記)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이름의 앞뒤 음절에 상관없이 “萬(일만 만)”은 수 개념(數概念)의 차자 가운데 그 빈도가 가장 우세한 차용자이다. 아울러 뒤 음절의 “代”는 앞에 든 노비명 “石代”의 경우와 같이 인명 접미사로서의 차용자이다. (주 15, 28 참조)

60) 春桂(춘계) : 기이한 향기를 풍긴다는 꽃 춘계(春桂)를 이름으로 대신하여 음차한 사내종의 이름이

다. 계집종의 이름으로 더 합당할 듯한 호칭이지만, 여성처럼 생긴 사내이기에 그렇게 명명한 듯하다. “계남(桂男)”이라 하면 달의 이칭으로 “호남자(好男子)”를 의미한 데서 일부러 미화시켜 작명한 남자 종의 이름으로 생각된다.

61) 莫只(막지) : 막이, 마기. 우리말 “막다”(금 禁, 방 防)는 그 명사형으로 막이, 막애, 막암 등의 파생어가 생겨나면서 ㄱ중성은 대부분 구어의 연음화 현상으로 후음절과 결합되기 마련이다. 마개, 마감 등은 이런 과정에서 정착된 어휘이고, “막이”만은 표준어에서 액막이, 바람막이에서와 같이 아직까지 어근을 가려 표기하고 있으나, 일상의 구어에서는 자연스럽게 “마기”로 발음되고 있다. “莫只”는 곧 여자의 출생을 금기하는 관념으로 인해, 위에는 “마기”를 음차 표기한

62) 善福(선복) : 착하고 복이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연유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작명하는 데에 일상생활에서 상용하는 한자 중에서도 좋은 뜻을 갖는 글자를 많이 차용함은 좋은 운명을 희구하는 길명 의식(吉名意識)의 반영이다. “善福”은 인명 가운데 이미 말한 良伊, 銀貴, 千福, 豊德, 貴福 등과 함께 그 대표적인 예인데, 작명 중 “福”은 점두어로의 차자보다 점미어로의 차용이 우세한 한자라고 하겠다. (주 33, 72 참조)

63) 能非(능비) : (주 12 참조)

64) 金德(금덕) : 쇠덕, 쇠덩이. 쇠불이의 덩이처럼 단단하고 건강하다는 데서 호칭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훈차한 한자 “金”(쇠 금)에 접사 “덩이”(작은 덩어리)의 어근을 음차하여 첨가시킨 표기형이다. 한국 한자음에는 “덩”의 표기자가 없으므로 이와 유사한 독음자인 “德”으로 음차한 예이다. 마치 金伊德(쇠덩이), 毛德(털덩이)등 노비명의 표기에서 “덩이”를 “德”으로 음차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그중 金伊德은 金德과 동궤(同軌)의 작명으로서 3자 표기를 취한 이체(異體)

65) 石非(석비) : 돌비 (주 55 참조)

66) 漢丁(한정) : 漢陽, 漢城, 漢江 등에 나오는 “漢”을 내세워 태어난 곳이 서울이요, 문명한 곳의 사람이라는 데서 출생지역 이름의 한자를 음차한 사내종의 호칭이다. 뒤 음절의 “丁”은 백정, 또는 부리는 사람을 이룰 때에 차자되는 남성 인명 점미사의 표기이다. (주 138 참조)

67) 金石(금석) : 쇠돌. (주 31 참조)

68) 春文(춘문) : 국어에서 한자의 차용 빈도가 높은 글자를 가리면 “春”(봄 춘)을 빼놓을 수 없다. 작명에 반영된 춘, 하, 추, 동 4계절 가운데, “춘”의 출현이 절대적인 것도 그와 같은 현상의 하나이다. 인간의 삶과 봄의 밀접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국어생활의 자연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앞 음절의 “春”은 봄의 훈차이기는 하지만, 음차로서 상용되어 문자생활에서 표음 그대로 이미 익어버린 한자이다. 인명의 차용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이곳 “春文” 역시 훈차의

69) 石代(석대) : 돌대. (주 15 참조)

70) 春德(춘덕) : 구어에서 널리 상용하는 “春”(봄 춘)과 인명 점미사로서 대표되는 “德”의 두 글자를 취하여 음차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뒤 음절에 쓰인 “~德”은 다음에 드는 노비명 “香德”의 경우와 같다. (주 68, 127 참조)

71) 末叱德(말질덕) : 굿덕, 곳덕. (주 49 참조)

72) 貴福(귀복) : 귀하고 복되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음차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이곳 “貴福”을 비롯하여 德福, 福壽, 富貴, 善福, 銀貴----등의 노비명은 모두 좋은 운명을 바라는 길명 의식의 반영인 것이다. (주 33, 62 참조)

73) 信福(신복) : 미덥고 복스럽다는 데서, 또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음차한 계집 이

름이다. 인륜으로 강조하는 오상(五常) 중의 하나인 “信”을 취하고, “福”은 인명점미사에 관용하는 차자이기는 하지만, 좋은 운명을 바라는 길명 의식에서 지은 노비명이다. (주 33, 62 참조)

74) 長介(장개) : 질개. “질질”(주책없이 무엇을 흘리는 모양), 또는 “질질대다”(질질 울다)의 어근 표기를 “長”(길 장)으로 훈차하고, 이에 인명 점미사로 “介”를 첨가시켜 표기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길다(長)”는 남방 방언에서 구개음화되어 “질다”라고 이른다. 이때의 어근 “질”은 “질질”과 같은 표음절임으로 연유하여 한자 “長”으로 훈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곳 노비명은 원래 어렸을 때 질질대며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오줌싸개”를 뜻한 데서 나온 지칭이 아

75) 豊德(풍덕) : 풍덕 (주 22 참조)

76) 後德(후덕) : 인륜의 강조에서 덕행 쌓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인명의 선후 음절 관계없이 “先德”, 또는 “後德”이라 한 노비명이 전한다. 앞에서도 덕행이요, 뒤에서도 덕행이라는 생활 규범의 강조에서 연유한 작명인데, 이곳 계집종의 이름 역시 그 한 예이다. 순수한 한자어로 보면 선덕은 덕망 있는 죽은 중을 이름에 대하여, 후덕은 그와 상대어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속단하기 어렵다. (주 22, 24, 42, 64 참조)

77) 鄭福(정복) : 사람 생김새가 매우 복스럽게 보인 데서 연유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노비명에 한자 “鄭”이 차용된 예는 극히 희귀하다. 지금까지 나타난 경우는 “鄭非”가 더 있을 뿐이다. 노비명에 보인 “鄭”은 성씨의 차자로 볼 수는 없다. 이는 구어에서 “정말로”, 또는 “참으로”를 이룰 때에 쓰는 “정”의 음차로 보인다. 인명 점미사에 관용하는 “福”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첨가 표기한 결과가 곧 이곳 여비의 호칭에 나타난 차자가 된 듯싶다. (주 33 참조)

78) 金石(금석) : 쇠돌. (주 31 참조)

79) 春玉(춘옥) : 구슬, 봄구슬. 옥처럼 곱고 깨끗하다는 데서 훈차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거기다가 희망과 활력을 느끼게 하는 봄의 이미지를 반영하여 앞 음절에 한자 “春”을 수식어로서 첨가함은 이름을 미화시키고자 한 작명의 한 방법이다. 평소 “구슬”이라고 부르던 호칭에 수식으로 “봄”의 뜻을 덧붙여 부른 호칭의 차자 표기가 곧 “春玉”이라 하겠다. (주 68, 134 참조).

80) 同叱今(동질금) : 똥금. 동물의 배설물인 “똥”이라 한 어휘를 작명에 넣어 음차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천한 것을 인명의 호칭으로 한 것은 천명(賤名)이 오히려 장수하고 다복하다는 민간 관념에서 말미암은 천명 의식의 결과이다. 종래 차자 표기에서는 “똥”을 “分叱”로, “똥”을 “同叱”로 2자 표기하는 예가 적지 않았으니, 同叱伊, 同叱禮, 同叱男----등의 노비명에서와 같이 “叱”은 앞 음절의 경음화(硬音化)를 위한 첨가 차자로 차용된 한자이다. 그리고 말음절에 보인 “

81) 同叱非(동질비) : 똥비. 앞에 든 同叱今(똥금)의 경우와 같이 천명의식에서 호칭한 계집종 이름이다. 점미사 “~今”이 여기에서 “~非”로 나타남은 차자표기만 다를 뿐 이미 말한 노비 “能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자 인명에 흔히 관용된 여성명 점미사의 첨가형 표기이다. (주 12, 80 참조)

82) 訥介(눌개) : 더듬개, 더듬이. 말을 더듬는 사람을 호칭하면서 차자 표기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한자 “訥”은 “말더듬다”는 뜻을 지닌 글자인데, 이의 명사형은 “말더듬이”이고, 이를 줄여서 “더듬이”라 다. 사람을 험하게, 또는 예사롭게 일러 또 “더듬개”라 한다. 인명 점미사로서 빈도 높게 쓰인 “~介”는 이때의 “~개”를 음차한 표기이다. (주 23, 56 참조)

83) 訥之(눌지) : 더듬지, 말더듬이. 앞에 든 “訥介”(더듬개)와 같은 호칭이라 할 계집종의 이름이다. “~介”를 점미사로서 사용 빈도가 높은 “~之”로 대치하여 음차하였을 뿐이다. (주 25, 82 참조)

84) 段(든) : ~은(는), ~딴. (강세보조사)

- 85) 爲齊(헝제) : ~하다, ~하지, ~한다.
- 86) 斗落只(두락지) : 마지기, 논이나 밭을 세는 단위.
- 87) 都石同(도석동) : 도돌동. 도돌동. 살결이 굵지 못하여 도돌도돌한 사람을 두고 호칭한 이름의 차자이다. 즉 앞 음절의 한자 “都”(도모지, 모두 도)의 음훈과 “石”(돌 석)의 훈을 좇아 “도돌도돌”(겉면에 작은 것들이 도도룩하게 나오거나 붙어 있어 고르지 못한 모양)을 차자하고, 거기에 남자의 인명 접미사로 흔히 쓰는 “~동이”의 본디 말인 “동”(동)을 한자 “同”으로 음차하여 첨기한 표기이다.
- 88) 屯田(둔전) : 관아에 딸린 밭, 또는 주둔병의 군량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밭.
- 89) 所橋(소교), 靑非(청비) : 바다리, 밭다리. 한자 “所”(바 소)와 “橋”(다리)의 훈차에 의해 호칭된 다리 이름의 차자이다, 한자 “靑”은 국어에서 비교적 많이 차자되어 쓰인 글자이다. 특히 색깔을 의미할 때 紅, 白과 함께 차용되며, 작명에는 “白” 다음으로 그 빈도가 우세하여 주로 인명의 접두사로 차자된다. 이처럼 관용되는 한자는 그 음훈을 가리지 않고 두루 차용되었는데, 훈차 의식의 쇠퇴로 “靑非”는 손쉬운 음차에 의해 차자된 인명으로 보인다. 아울러 뒤 음절의 “~非”
- 90) 池洞(지동) : 못골. 한자 “池”(못 지)와 “洞”(골 동)의 훈차에 의해 호칭된 이름의 차자이다.
- 91) 古介(고개) : 사람이 넘어 다니는 산허리나 언덕의 높은 부분을 이르는 “고개”의 음차 표기이다.
- 92) 業伊(업이) : 업동이. 집 앞에 버려져 있거나 우연히 얻거나 하여 기르는 아이를 “업동이”라 하는 바, 이는 “業童”에서 말미암은 말이요, “業伊”는 “업동이”의 약칭으로서 음차한 호칭이다. “~동이”와 “~이”는 인명접미사에서 흔히 교차되어 쓰이는 접사로서, “~伊”는 후자의 음차이다. 인명의 차자 표기로 보이는 業介, 業同, 業同伊, 業石乙-----등은 모두 “업동이”를 이르는 노비명으로서 같은 계열의 차자 표기이다. (주 11, 20, 27, 38 참조)
- 93) ㄱ : 이곳의 ㄱ표는 수결(手決)의 한 표지(標識)로 보인다. 이하 ㄱ 표는 모두 이와 같다.
- 94) 衿(깃) : (주 10 참조)
- 95) 等乙(들을) : (주 4 참조)
- 96) 等亦中(들여히) : (주 3 참조)
- 97) 分給(분급), 爲在果(헝거과) : (주 5 참조), (주 7 참조)
- 98) 司馬(사마) : 사마시(司馬試)의 준말, 생원 진사시(生員進士試).
- 99) 蔭官(음관) :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덕으로 얻는 음직(蔭職)의 관원, 또는 생원, 진사, 유학(幼學)으로서 지내던 음직의 관원.
- 100) 爲行如可(헝니다가) : ~하고 있다가, ~하였다가.
- 101) 無後(무후) : 대를 이어갈 자손이 없음.
- 102) 奉祀(봉사) :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것.
- 103) 是如(이든) : ~이다, ~이라고, ~이라는.
- 104) 良中(아히) : (주 8 참조)
- 105) 小宗(소종) : 대종(大宗)에서 갈려나간 방계(傍系).
- 106) 不遷(불천) : 불천지위(不遷之位). 큰 공으로 영구히 사당에 모시는 것을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
- 107) 爲去乎(헝거운) : ~하거니와, ~하니, ~하므로.
- 108) 爲齊(헝제) : (주 85 참조)
- 109) 爲良置(헝야두) : ~하여도, ~한 것도.
- 110) 以(으로), 更良(가새아), 爲旆(헝며) : ~으로, 다시, ~하며.

- 111) 承重(승중), 乙良置(으랑두, 을랑도) : 장손(長孫)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 ~이라도, ~일지라도.
- 112) 亦中(여히) : ~에게, ~때에, ~경우에.(처격조사)
- 113) 爲乎矣(호오되) : ~하오되, ~하되.
- 114) 爲昆(호곤) : ~하니, ~하고서. ~하고는.
- 115) 并以(값, 아오로) : 아울러, 더불어.
- 116) 爲乎事(호은일, 호을일) : ~한 일, ~하는 일, ~할 일.
- 117) 蒙萬(몽만) : 얼마니. 어려서 어딘지 덜 되게만 보이는 야무지지 못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국어에서 보는 접두어 “얼”은 “되다가 못 된, 똑똑하지 못한”의 뜻을 나타내는 말인데, 한자 “蒙”(어릴 몽}의 훈을 약칭으로 이르는 “얼”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뒤 음절의 한자 “萬”(일만 만)은 수 개념의 차자라기보다 인명 접미사로서 “사람”의 뜻을 내포한 표기이다. “똥마니”(범죄 집단에서 부하를 속되게 이르는 말)의 “마니”, 또는 산삼을 캐는 심마니들이 이르는 “마
- 118) 蒙今(몽금) : 몽곳, 몽곳. (주 57 참조)
- 119) 李分(이분) : 이뿐, 이뿌니. 예쁘게 생긴 얼굴이나 몸짓을 찬양한 데서 연유한 계집종 이름의 음차 표기이다. 구어에서는 지방에 따라 모음절의 변이(變異)로 예→이, 또는 뵤→뿌 등 | 모음화와 원순음화(圓脣音化) 현상이 이는 구어를 듣는다. “예쁘다”가 “이뿌다”로 통용됨은 그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뵤”은 그 관형사형인데, 인명으로 채택되면서 명사형으로 호칭되었으니, 그에 대한 음차 표기가 곧 “李分”이다. 따라서 한자 “分”은 국어의 이두에서도 分乙(뵤을), 分以(
- 120) 檢同(검동) : 검둥, 검둥이. 살빛이 검은 사람을 이르는 “검둥이”를 음차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뒤 음절의 “同”은 인명 접미사로서 많이 쓰이는 “~둥이”의 음차자이다. (주 14, 20 참조)
- 121) 英三(영삼) : 원래 꽃을 뜻한 한자 “英”은 “아름답다”, 또는 “영웅” 등의 의미로 확산되면서, 英玉, 英男, 英代, 英今, 英三----등 다양한 인명의 차자로 채용되었는데, 거기에 수 개념의 한자 “三”이 첨기된 사내종 이름의 차자표기가 곧 “英三”이다. 특히 뒤 음절의 “三”은 작명에 자주 나오는 수 개념의 한자 가운데 빈도가 잦은 대표적인 차자이다. 무슨 일이든 세 번 되풀이해야 좋다는 민속 관념의 반영인 셈이다.
- 122) 姜金伊(강금이) : 강쇠. 강한 쇠처럼 건강하여 오래 살기를 바라는 뜻에서, 또는 든든한 사람을 일러 명명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즉 강철을 말하는 “鋼쇠”의 이체표기이다. 혹은 두음절의 “姜”은 사람의 성씨와도 연결시킬 수 있으나, 종의 이름이므로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고, 이는 주로 강(強)하다는 뜻으로 쓰인 한자인 바, 여기서는 그 훈차 표기이다. 종의 인명 중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한자 “強”과 “鋼”의 차용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음차로서 “強牙致”가 있을 뿐이
- 123) 姜豊(강풍) : 든든하고 풍족하게 보이는 종을 호칭한 사내종 이름의 차자 표기이다. 노비의 이름에 차자된 한자 姜(강할 강)과 豊(풍족할 풍)에 대한 의미와 작명에서의 그 활용은 앞에 든 “姜金伊”와 “豊非” 등의 인명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주 18, 122 참조)
- 124) 石松(석송) : 노비명에는 식물의 이름을 그대로 음차하여 호칭한 예가 적지 않은데, 이 역시 그 한 예가 되는 사내종의 이름이다. (주 41 참조)
- 125) 加知(가지) : 강아지. 어린 노비를 귀엽게 여겨 강아지라고 부름으로써 그 호칭을 음차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가지”는 “강아지”의 약칭인데, 이는 지역에 따라 일상어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말이다. “강아지”를 차자 표기한 인명에 江阿知, 姜兒知, 加知 등의 이형이 있음은 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뒤

음절의 “~知”는 犬也知(강아지), 道也知(돼지), 冫也知(송아지)----등의 노비명에서와 같이 흔히 접사 “~지”(~아지 : 일부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새끼”,

126) 金伊江(금이강) : 쇠강, 셋강. 인명 가운데 차용 빈도가 높은 대표적인 차자는 한자 “金”(쇠 금)이다. 金德, 金石, 雪金伊 등의 인명 소개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음으로는 “금”이요, “쇠”는 석독(釋讀)에 의한 차자 표기이다. “金”을 독립적으로 차자한 경우는 음훈 양면의 차용이 활용되었지만, 거기에 “伊”의 첨가로 2자 1음절 형성일 때는 으레 훈차에 의한 “쇠”의 표기였음을 알게 한다. 한편 민간의 구어에서는 지역에 따라 모음의 교체로 쇠, 새, 세 등이

127) 香德(향덕) : 향긋한 인품을 지닌, 덕 있는 사람이라는 데서, 또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명명된 계집종의 이름이다. 한자 “香”(향기 향)과 “德”(덕 덕)을 취하여 이름을 미화시키고자 한 뜻에서 나온 길명 의식의 반영인 셈이다. 그중 “~德”은 여성의 인명 접미사로서 유별나게 다양하게 차용된 차자인데, 이미 말한 豐德, 甘德, 勻德, 金德 등의 인명과는 달리, 여기서는 “春德”의 경우와 같이 한자에 담긴 본래의 훈을 부각시켜 호칭한 예이다. (주 22

128) 後三(후삼) : 셋째 번 뒤로 출생한 사내라는 뜻으로 호칭된 노비명의 차자인 듯하다. 화살 한 손을 쏘아 셋째, 넷째, 다섯째의 세 개가 맞는 것을 “후삼”이라고도 하지만, 노비명과 연관짓기는 어려운가 싶다.

129) 良非(양비) : 어질이, 어질비. 한자 “良”(어질 양)의 훈에 의한 차자에 인명접미사 “~非”를 첨가하여 호칭한 계집종 이름의 표기이다. 良伊, 良孫, 良介----등과 같은 계열의 이름이다. 뒤 음절의 한자 “非”는 ~伊, ~介, ~孫 등과 같이 인명에 자주 차자된 대표적인 접사인데, 특히 종의 호칭에 관용된 여성 인명 접미사로 지적된다. (주 12, 45, 51, 81 참조)

130) 無心(무심) : 업심, 업슴. 별달리 갖은 것도 없는 가난한 종을 이룬 데서 차자 표기한 계집종의 이름으로 생각된다. “없다”(無)의 명사형은 구어에 따라 “업심, 업슴” 등으로 나타나고, “업신여기다”의 준말 “업신”이라 한 어휘 역시 이에서 파생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같은 어휘의 차자에서 “無心”의 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별다른 생각이나 감정이 없을 때, 또는 걱정이나 관심을 두지 않음을 “無心하다”고 한다. 이는 이미 생활화된 한자로의 표기이다.

131) 百年(백년) : 장수를 바라는 뜻을 담아 호칭의 독음을 그대로 음차 표기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주 39 참조)

132) 萬代(만대) : 장수하기를 원하는 뜻에서 한자의 독음을 그대로 음차하여 호칭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주 59 참조)

133) 蒙今(몽금) : 몽긋, 몽긋. (주 57 참조)

134) 英玉(영옥) : 구슬을 뜻하는 한자 “玉”의 차자에 아름답고 빼어남을 의미한 “英”을 관형어로 덧붙여 차자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그 이름이 들어나기를 바라는 호명 의식(好名意識)의 반영이다. 특히 인명에 자주 쓰인 대표적 차자라 할 “玉”은 남성명보다 여성명에의 차용 빈도가 훨씬 우세하며, 이름의 선후 음절에 관계없이 두루 쓰인 한자이다. 뒤 음절의 접미사에서 주로 독음 그대로 차자되었으니, “英玉”은 그같은 예의 하나이다. (주 121 참조)

135) 甘德(감덕) : 검덕, 검둥이, 검덩이. 용모나 얼굴이 검은 데서 말미암은 계집종의 이름이다. (주 24 참조)

136) 玉代(옥대) : 구슬. 구슬(玉)처럼 곱고 깨끗함을 이르며, 이름 들어내기를 바라는 호명 의식에서 작명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노비명인 “英玉”이나 “春玉”의 경우와 같이 인명의 미칭인 셈이다. 후음절

의 한자 “代”는 石代, 貴代, 銀代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자 빈도가 비교적 우세한 인명 접미사이다.

(주 15, 79 참조)

137) 今春(금춘) : 올봄. 계절적으로 봄에 태어난 아이, 즉 금년 봄에 출생하였다는 뜻에서 훈차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인명에서 춘, 하, 추, 동 네계절 중 봄을 뜻하는 한자의 차용빈도가 높음은 “春文”의 설명에서 이미 지적하였지만, 비록 봄의 출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1년의 시작이요, 만물이 생동하는 이미지의 부상으로 한자 “春”의 인명 차용은 수다하다. 甲春, 一春, 庚春----등 인명 접미사에 그 차용이 많은 것도 그 일례이다. 국어에서 한자 “今”이나 “春”의 차용이

138) 漢世(한세) : 앞에 든 “漢丁”을 비롯하여 漢吉, 漢非, 漢代----등의 인명과 같은 계열의 음차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후음절의 “世”는 작명에 비교적 빈도 높게 차용된 인명 접미사이다. 원래 가계의 “대수”를 말할 때, 또는 “세상”의 뜻을 지시하는 한자였지만, 실제 구어에서는 간편한 음독이 우세하여 작명에도 주로 음차되어 표기된 한자로 보인다. (주 66, 144, 334 참조)

139) 石松(석송) : (주 41, 124 참조)

140) 莫只(막지) : 마기. 종래의 남자 선호사상에서 아들 생산만을 위한 나머지, 딸을 낳으면 그것으로 끝막이가 되어, 앞으로의 딸 생산을 금하고자 한 마음에서 호칭한 계집종 이름의 차자이다. 즉 어휘 “막다”(防)의 어간이 접미사 ~이, ~애, ~암 등과 결합하면 연음화되어 마기, 마개, 마감 등의 명사를 이룸은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중 “기”의 음차자는 “只”이다. 莫今, 莫介 등의 인명은 이로 인해 생긴 호칭의 표기이다. 우리말의 이두에 쓰인 罽只(일지기 : 일찍이),

141) 姜金伊(강금이) : 강쇠. (주 122 참조)

142) 豐德(풍덕) : 풍덩. (주 22 참조)

143) 檢孫(검손) : 감손. (주 14 참조)

144) 二世(이세) : 백년은 물론 더 이상 장수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차자된 사내종의 이름이다. 한자 “世”는 흔히 가계의 대수를 말하는 “대(代)”, 또는 “세상”의 뜻으로 차용되었지만, 그밖에 “백년”의 미로도 쓰였다. 특히 수를 지시하는 한자에 덧붙여 이르는 작명에는 장수를 소망하는 뜻의 반영인데, 一世, 二世, 百世, 千世, 萬世----등의 인명이 그러하다. (주 39, 138 참조)

145) 金伊江(금이강) : 쇠강, 셋강. (주 126 참조)

146) 加叱非(가질비) : 더질비. 행동이나 하는 일 등이 정상보다 펍 느리다는 데서 차자된 계집종의 이름이다. 표준어 “더디다”는 일상의 구어에서 흔히 어간의 끝음절에 구개음화가 생기어 “더지다”라고 발음된다. 따라서 한자 “加”(더할 가)는 어간 “더지”의 앞 음절을 훈차한 것이고, “叱”(꾸짖을 질)은 그 후음절의 음차로 생긴 차자이다. 거기에 다시 여성명의 접미사로 관용하는 “~非”를 첨가시킨 3자 인명의 표기가 곧 “加叱非”이다. “加進介”(더진개)나 “加叱今”(더질금)

147) 無心(무심) : 업심, 업슴. (주 130 참조)

148) 秋京(추경) : 서울에서 가을에 태어난 아이라는 뜻에서 호칭된 듯한 사내종 이름의 차자 표기이다. 인명에는 출생지를 들어내어 호칭한 경우, 또는 출생한 계절을 표명한 작명이 있다. 서울 태생에 京女, 京禮, 京男----등의 이름이 있고, 네 계절의 때를 가려 호칭한 인명 중, 秋生, 秋介, 秋禮, 秋男, 秋石乙----등은 특히 가을의 출생 시기를 표명한 작명의 차자라고 하겠다.

149) 百禮(백례) : 백세도록 장수하면서 인륜의 예의 갖춘 모범된 인간이 되기를 바라며 호칭한 계집종 이름의 차자이다. “百”이 수 개념의 차자로서 작명에 비교적 관용된 예는 “百年”의 소개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뒤 음절에 쓰인 “禮”는 ~非, ~今 등과 함께 여자의 호칭에 관용된 여성 인명 접미사이다. 특

히 “禮”는 인륜적으로 내세우는 오상(五常)의 하나로서 여자의 조신을 강조하는 사회적 관념이 밑바탕이 되어 작명에 관용되었지만, 때에 따라서는 본래의 의미 구현에 과념됨이

150) 銀代(은대) : 금은처럼 보배롭게 여긴 데서, 또는 은빛 나는 예쁜 얼굴을 두고 호칭한 계집종 이름의 차자 표기이다. 銀介, 銀今, 銀德----등과 같은 계열의 노비명이다. 뒤 음절에 쓰인 “代”는 앞에서 소개한 石代, 玉代, 萬代----등의 인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명 접미사에 빈도 높게 쓰인 차자로서, 특히 여성 인명 표기에 우세하게 나타난다. (주 36, 59, 136 참조)

151) 虫介(충개) : 옴, 벌레. “옴”과 “벌레” 등 두 갈래의 호칭을 상상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옴벌레에 의해 생기는 피부병을 충개(蟲疥, 옴)라고 하는데, “虫介”는 이와 같은 독음의 간편한 글자로 차자한 이형 표기로 보인다. 마치 “春芥”를 차자해서 “春介”라고 표기한 것과 같다. 즉 피부가 옴에 오른 것처럼 거칠거나 대하는 사람에게 거부감을 주는 데서 “옴”의 뜻을 담아 훈차한 작명의 표기이다. 후자의 경우, 천한 이름이 복이 된다는 작명 의식에서 벌레(충 虫

152) 石乙之(석을지) : 돌, 돌지. 돌처럼 단단하고 야무지거나, 혹은 유통성이 없는 사람을 두고 호칭한 계집종 이름의 차자 표기이다. “石”(돌 석)에 대한 훈차는 “石”의 1자, 또는 “石乙”의 2자 표기 등 두 유형이 공용되어 많이 쓰인다. 때문에 인명에 나오는 “石”과 “石乙”은 같은 호칭이면서 경우에 따라 달리 표기한 이형일 뿐이다. “之”는 또 인명의 말음절에서 유별나게 관용하는 인명 접미사의 차자 표기이다. 망아지, 돼지, 강아지, 자지----등 “지” 말음형 어휘

153) 吉萬(길만) : (주 28 참조)

154) 莫德(막덕) : 막대기. 천하게 여기며 얹잡아 보는 작명 의식에서, 긴 막대기처럼 생겼다 하여 음차 표기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막대기”라 한 표준어는 일상의 구어에서 마덕이, 막땡이, 막덕이, 막덩이 등 언어 습관에 따라 다양하게 구사된다. 2음절의 표기로는 말음절 “이”의 생략이며, 제 2음절의 “덕, 땡, 덕, 덩” 등은 주로 “德”으로 차자된다. 勺德(쌍덩이), 金德(씻덩이) 등에 보인 “德”의 차자는 모두 이와 같은 예의 표기이다. (주 42, 64 참조)

155) 栢叱同(백질동) : 잣동 (주 20 참조)

156) 福德(복덕) : 복덩이. 복을 타고 난 사람이나, 복이 많은 사람에 대하여, 또는 복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명명한 계집종 이름의 표기이다. 뒤 음절의 “德”은 “金德(씻덩이)”에서와 같은 “덩이”의 음차 표기이다. 혹은 좋은 운명을 바라는 길명 의식에서 복과 덕을 기원하는 작명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종래 노비에 대한 작명의 예로 보아 “복덩이”의 호칭이 더 자연스럽다. (주 64 참조)

157) 每叱之(매질지) : 매질이. 남을 잘 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을 두고 이른 계집종의 이름이다. 이른바 매질꾼이나 다름없는 종의 호칭이다. 앞 음절의 “每”는 몽둥이, 막대기, 회 등을 총칭하여 이르는 “매”의 음차이고, “叱”은 흔히 축음 ㅅ의 차자로 쓰였지만, 여기서는 독음인 “질”을 그대로 음차한 것이니, 매로 때리는 “매질”을 그대로 음차한 표기가 곧 “每叱”이다. 아울러 “之”는 “伊”와 서로 호용되면서 작명의 말음절에 관용되는 인명 접미사의 대표적인 예이다. (주

158) 春介(춘개) : 봄에 피는 겨자(춘개 春芥), 그 씨는 맵고 향기로우 음식의 양념에 쓰이는데, 이같은 의미를 연상시켜 호칭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겨자로 만든 봄나물을 “春芥菜”(춘개채)라고 하는 바, 그 약칭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뒤 음절의 “介”는 인명에 사용빈도가 높은 대표적인 접미사로서 “春芥”의 “芥”를 음차한 것임은 물론, 한자 “芥”의 쓰기보다 “介”의 차용이 손쉬워 그렇게 차자 표기한 인명으로도 풀이된다. 마치 蟲疥를 虫介로 음차 표기한 것과 같다.

159) 莫只(막지) : 마기. (주 140 참조)

160) 喜今(희금) : 희곰. 흰머리가 있거나 얼굴이 약간 희게 보이는 사람을 두고 호칭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희곰하다”의 어근을 그대로 음차한 표기명이다. 뒤 음절의 “今”은 남성보다 여성의 인명에 보다 우세하게 쓰인 접미사이다. 혹은 “기쁘다”는 뜻을 담은 한자 “喜”를 굳이 차용한 이유가 있다면 여자에 대한 작명 의식의 반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때는 특히 얼굴이나 모양이 희고 깨끗하여 기쁘게 여긴 데서 차자의 선택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하게 된다. (주 26, 57,

161) 蒙同(몽동) : 몽둥이. (주 11 참조)

162) 蒙介(몽개) : 멧개. 상대방을 알잡아 험하게 여기면서 속이 트이지 못한 우렁챙이라고 비칭한 데서 이를 음차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우리의 사용 한자 중에는 “”멍“의 독음이 없으므로 이와 근사한 한자 ”蒙“으로 음차한 예이다. 인명에서의 ”蒙“은 훈차보다 음차의 경우가 많은데, 蒙今(몽긋), 蒙同(몽둥이), 蒙寵(멍칭이)----등이 이에 속한 노비명들이다. 그리고 뒤 음절의 ”介“는 인명 접미사로서 빈도 높게 차용된 차자인데, 음운 호응으로 흔히 같이 쓰는 “개”의 음

163) 檢孫(검손) : 감손. (주 14 참조)

164) 山世(산세) : 두메산골에서 태어난 아이, 즉 산동(山童)과 같은 개념에서 호칭한 사내종 이름의 차자 표기이다. 즉 산동(山童)과 같은 계열의 인명이다. 인명의 후음절에서 다양하게 차자된 “世”는 이곳에서 역시 사람을 가리키는 접미사로서의 독음 차자이다. 접미사에 흔히 차용되는 “·~이, ·~비”등과 같은 계열의 인명 접미사이므로, 노비명에 나오는 山伊, 山非도 이곳 “山世”와 동일한 작명의식으로 말미암은 노비명임은 물론이다. (주 38, 43, 138, 144 참조)

165) 石非(석비) : 돌비. (주 19 참조)

166) 加進介(가진개) : 더진개. 평소의 행동이나 일 등이 더디며, 썩 느린 계집종을 일러 호칭한 이름의 차자 표기이다. “더디다”의 방언 “더지다”의 어근을 차자 표기하는 데에 한자 “加”(더할 가)의 훈차와 “進”(나아갈 진)의 음차를 결합시키고, 거기에 인명 접미사로 관용하는 “~介”를 취하여 3자 표기의 노비명을 이룬 셈이다. 加叱非, 加叱今----등과 같은 계열의 작명이다. (주 146 참조)

167) 豊德(풍덕) : 풍덕. (주 22 참조)

168) 福堅(복견) : 복되고, 그 복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호칭된 사내종의 이름이다. 좋은 운명을 기원하는 길명 의식의 반영인 것이다. 작명에 한자 “福”은 유달리 많으며, 그것의 차용은 이름의 선후음에 상관없이 두루 쓰인 한자이다.

169) 能非(능비) : 일에 능숙하거나 여유 있게 행동하는 계집종을 두고 이룬 작명이다. (주 12 참조)

170) 杯介(배개) : 배개, 비개. 사람의 머리 밑에 베는 “배개”를 닮은 여자, 또는 “배개”의 역할을 잘하거나, 잠자기를 좋아하여 배개를 벗으로 삼는 계집종을 두고 호칭한 노비명의 차자 표기이다. 표준어 “배개”는 방언에 따라 배개, 베개, 비개 등 다양한 어형으로 통용되는데, 이를 한자로 음차한 표기가 “杯介”이다. “介”는 앞에 든 豊介, 加進介, 訥介 등에서와 같이 흔히 인명 접미사로 관용한 차자이다 그 중에서도 杯介, 蒙介 등의 경우와 같이 말음절 “개(계)”형의

171) 蒙同(몽동) : 몽둥, 몽둥이. (주 11 참조)

172) 夢今(몽금) : 몽긋, 몽긋. 노비의 이름 “蒙今”과 동계의 음차자명(음차자명)이다. 앞 음절의 한자 “蒙”(어릴 몽)을 “夢”(꿈 몽)으로 달리한 이체 표기형이다. (주 57 참조)

173) 香蘭(향란) : 향난. 은근한 향기 풍기는 난처럼 고아한 인품을 가진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호칭된 계집종의 이름이다. 여자 이름에 등장하는 화훼류(花卉類)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단연 난(蘭)을 손꼽는다.

174) 香綠(향록) : 차자된 한자의 뜻이 지시하는 대로 보면 향기롭고 녹색이 감도는 인품을 지닌 사람을 가리킨 작명인 듯하나 속단하기 어렵다. 노비명에서 한자 “香”의 차자는 앞 음절에서보다 뒤 음절에 관용되어 있고, 그것도 주로 여성의 이름에 나타난 차자인데, 사내종의 이름은 그와 다른 면이 있으므로 더 두고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175) 加叱非(가질비) : 더질비. (주 146 참조)

176) 件里同(건리동) : 바리동(동), 발이동(동). 낫쇠로 만든 여자의 밥그릇, 또는 중의 공양 그릇을 “바리”라고 하는데, 얼굴이 이러한 밥그릇을 연상케 하는 사내종을 두고 호칭한 이름의 차자 표기이다. 한편, 한자 “件”(조건, 가지 건)의 훈으로 일컫는 의존명사 “가지”는 것, 벌, 치 등의 뜻을 갖는다. 그 가운데 “벌”은 옷이나 그릇 등을 말한다. 이두에서도 “발기”(벌기, 물건 이름이나 수량을 적은 목록)를 “件記”로 차자하여 왔다. 그리고 “발(벌)”이 일상의 구

177) 莫只(막지) : 막이, 마기. (주 61 참조)

178) 石福(석복) : 돌복. 하찮은 복을 타고난 사내라는 뜻으로 호칭한 남자종의 이름이다. 노비명에서 빈도 높게 쓰이는 한자 “石”(돌 석)은 대부분이 훈독으로 차자된다. 간혹 그 뜻과 상관없이 접두사 “돌”(품질이 낮거나 저질로 난 야생물임을 나타내는 말)과의 결합으로 작명된 경우가 있으니, “石福”에서의 “石”은 그 한 예이다. (주 152 참조)

179) 豊德(풍덕) : 풍덕. (주 22 참조)

180) 後堅(후견) : 뒷전, 뒷견. 스스로 뒤처지거나, 또는 뒤처진 대접을 받는 처지의 사람을 두고 호칭한 사내종 이름의 차자 표기이다. 뒤쪽이 되는 부근, 또는 차례로 보아 나중의 위치를 “뒷전”이라 한다. 이는 비표준어인 “뒷견”과 같은 어휘인데, 이곳 이름의 뒤 음절 “견(堅)”은 구개음화되기 전 발음의 차자 표기인 것이다.

181) 先德(선덕) : 선덩이, 선동이. 쌍둥이 중에서 먼저 태어난 아이라는 뜻에서 호칭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선덩이 또는 선동이에서 말음절 “이”의 생략으로 차자한 작명이다. 한 태에서 출생한 쌍생아(雙生兒) 중에서 남자 아이를 이름으로 표기할 때는 주로 남성 인명 접미사로 쓰는 한자 童, 男, 同 등으로 차자하고, 이에 준하여 여자 아이 이름의 차자에는 여성 인명 접미사에 관용하던 한자 德, 女, 今 등의 차자 표기를 위주한 것으로 보인다. 先童, 先男, 先同伊 등의 이름

182) 謹世(근세) : 한자 “謹”(삼갈, 공경할 근)에 담긴 훈을 좇아 조심성 있는 아이, 또는 그러한 사내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호칭한 새내종의 이름이다. 후음절의 “世”는 흔히 가계의 “대수”를 말하거나, “백년”을 뜻할 때에, 또는 “세상”의 의미로 차용할 때에 인명의 접미사 차자로 관용되었으니, 이곳 “謹世”는 그 한 예의 차자 표기이다. (주 138, 144 참조)

183) 彌伊(필이) : 돛이, 도미. 한자 “彌”(도울 필)의 훈을 좇아 일을 잘 돕고 주선하는 사내종을 호칭한 이름의 차자 표기이다. 또한 앞 음절의 “彌”은 “도지개”(트집난 활을 바로잡는 틀)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이 역시 “돕다”는 뜻에서 말미암은 어휘이다. 따라서 표준어 “돕다”의 명사형은 “도움”이지만, 이를 약칭한 어휘의 이형(異形)에는 “돛” 또는 “도미” 등이 있다. 그중 후자를 분절(分綴) 차자한 것이 “彌伊”라고 한 차자 표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뒤

184) 春介(춘개) : (주 158 참조)

185) 木世(목세) : 모새, 목새. 물결에 밀려 한 곳에 쌓인 보드라운 모래를 “목새”라고 하는 바, 이의 유사어로는 모래.모새 등이 있다. 이처럼 물가의 모래처럼 부드럽게 보이는 사내종을 호칭한 이름의 음차자가 바로 “木世”이다. 뒤 음절의 “世”는 “세”와 “새” 등의 발음에 상관없이 접미사로서 빈도 높게 관

용하던 차자 표기이다. 한편, 한자 “木”(나무 목)의 훈과 “世”(세상 세)의 음을 빌어 표기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나무새”의 차자로서 나무숲, 또는

186) 加吡非(가질비) : 더질비. (주 146, 166 참조)

187) 莫今(막금) : 막음, 마금. 여자의 출생을 이만 막음하자는 뜻을 담아 그 호칭을 음차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막다”(禁, 防)의 어근에 여성 인명 접미사로 관용하는 “今”을 첨기한 작명이기도 하지만, 또한 “막다”의 명사형은 “막음”이요, 이의 발음은 “마금”이므로 이러한 어형의 차자를 겸한 작명이다. 이는 莫只, 莫介 등의 노비명 어형과 같은 계열의 인명임을 알 수 있다. (주 61, 140 참조)

188) 姜豊(강풍) : (주 123 참조)

189) 莫乃(막내) : 맨 끝에 난 아이를 가리키는 “막내”의 호칭을 따 그대로 음차한 노비명의 차자표기이다. 여기서는 계집종의 호칭인 것으로 보아 맨 끝으로 출생한 “막내딸”의 약칭으로 생각된다.

190) 段(든) : (주 84 참조)

191) 安徐(안서, 아니), 爲有昆(후잇곤) : ~하지 말 것.(금지의 의미인 부정사), ~하였으니, ~하였거니와, ~하였고는.

192) 爲乎事(후온일) : (주 116 참조)

193) 大初里(대초리) : 대추리(大秋里)

194) 蛇池(사지) : 뱀못, 배암못. 뱀처럼 길다란 못, 또는 뱀이 있는 곳을 지칭하는 못 이름이다. 표준어 “뱀”(蛇)은 방언에 따라 “배암.진대” 등으로 이르면서, 표준어와 함께 그 형상을 닮은 것을 가리키는 수다한 어휘가 생성되고 파생되어 왔다. “배암못”도 그 일종인데, “蛇池”는 이를 혼차한 표기이다.

195) 延明(연명) : 다음의 글에 “徐延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는 성씨 “徐”의 표기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주 257 참조).

196) 池洞(지동), 終伊(종이) : 못골. (주 90 참조), 마침이, 마치미. 남자 선호사상에서 여자의 태어남을 그만 마치기 바라는 뜻에서 호칭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마침”은 곧 “마치다”의 명사형이다. 옛말에서 보는 마(마침 : 악곡의 끝을 나타내는 말), 마내(마침내)는 곧 이로부터 파생한 어휘이다. 앞 음절의 “終”은 혼차로서 “마침”의 표기이고, 뒤 음절의 “伊”는 앞 음절의 종성에 음편상(音便上) 후속되는 “이”의 음차자로서 인명에 흔히 쓰는 접미사의 표기를 겸한 셈이다.

197) 豆許未(두허미) : 두엄. 낙엽 등을 쌓아서 썩여 만든 거름을 “두엄”이라 하는데, 이의 방언이며, 옛말인 “두힘”에 대한 음차 표기이다. 끝 음절의 “未”는 앞 음절의 종성이 연음화되면서 나타나는 “미”의 차자 표기이다.

198) 小經(소경) : 경서(經書) 가운데 권수가 적은 것을 이르는 말. 즉, 주역(周易), 서경(書經), 상서(尙書) 등이다.

199) 承重(승중) : (주 111 참조), (주 10 참조)

200) 只瓦家(지와가) : 기와집(기와가). 앞 음절의 한자 “只”는 구개음화로 나타나는 방언의 “지와 집”에서 “지”를 그대로 음차한 표기다. 종래 이두에서도 이는 “기”의 표기로 쓰여 왔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주 61 참조)

201) 代田(대전) : 해마다 장소를 바꾸어 경작하는 전지(田地)

202) 進福(진복) : (주 35 참조)

203) 富貴(부귀) : 재산이 많고 귀한 인품을 갖추어 넉넉하고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호칭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貴福, 福德, 壽福----등의 작명에서와 같이 좋은 운명을 바라는 길명 의식의 반영

이라 하겠다. (주 36, 72 참조)

204) 甘德(감덕) : 검덕, 검둥이, 검덩이. (주 24 참조)

205) 末叱金(말질금) : 꾀쇠. 한자 “末”의 훈을 좇아 맨 끝에 난 아이라는 데서 호칭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훈차한 한자 “末”(끝 말)에 사잇소리 “人”의 차자로 관용되던 “叱”을 첨기한 2자 표기의 “末叱”은 1음절 “꾀”의 차자이다. 인명 접미사로 차자된 “金”은 주로 남성 이름의 쓰임임에 대하여, 末叱德(꾀덕).末叱禮(꾀네) 등 노비명에 보인 “德”과 “禮” 등은 주로 여성 인명에 쓰인 접미사임을 알 수 있다. “金”(쇠 금)은 곧 훈차에 의한 표기이다. 이에 말음 첨

206) 蘭金(난금) : 향긋한 난(蘭)의 인품이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인품을 바라는 뜻에서 호칭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노비명 “香蘭”이와 같은 작명 의식에서 연유한 인명의 차자표기이다. 한편 인명 접미사에서 한자 “金”(쇠 금)의 훈차일 때는 남성명의 경우임에 대하여, 여성명의 접미사에 관용되던 “今”의 이체(異體)로서 차자될 때는 “금”이라고 하는 독음 그대로 음차한 표기임을 알게 한다. (주 173 참조)

207) 末叱致(말질치) : 꾀치. 맨 끝에 난 아이를 앞잡아 이른 데서 “끝 물건”이라는 뜻으로 호칭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이는 이미 소개한 “末叱金”(꾀쇠)와 같은 계열의 노비명에 대한 차자표기이다. 말음절의 “致”는 어떤 물건을 나타내는 말에 덧붙여 쓰는 접미사 “치”의 음차이다. 이와 연관하여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앞잡아 이르되, “이 물건, 저 물건”이라 함을 대신하여 “이 치, 저 치”라고도 한다. 이 때의 “치”를 인명 접미사의 표기에 대치하여 첨기하면서 음차로 나타난

208) 毛叱柱(모질주) : 털지둥. 든든하여 터를 잘 거느리고 살아갈 사람이라는 호칭에서 훈차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叱”은 앞에 든 “末叱致”의 인명에서와 같이 앞 음절의 종성(終聲)에 대치하여 “털”을 뜻하는 한자 “毛”와의 결합으로 표기된 2자 1음절의 조자(造字)이다. 그리고 끝 음절 “柱”(기둥 주)의 훈은 구개음화로 인해 “지둥”으로도 통용되는 바, 이를 훈차한 한자 “柱”를 함께 표기한 인명이 곧 노비명 “毛叱柱”이다. (주 207 참조)

209) 內隱今(내은금) : 낸금. 일을 처리하는 데에 민첩하여 주저하지 않은 계집종을 두고 이른 호칭의 차자 표기이다. 표준어에서 부사 “냉금”(머뭇거리지 않고 단번에 빨리)은 구어에 따라 부드러운 발음으로 “낸금”, 또는 “냉금”이라 하고, 이를 반복하는 표현에서는 낸금낸금, 냉금냉금이라 한다. 여기에 드는 노비명은 이를 음차한 표기이다. “隱.”은 종래의 이두에서도 흔히 종성 ㄴ의 표기로서 앞 음절에 첨기되어 왔는데, 이곳의 “內隱” 2자는 “낸”의 1음절 표기를 위한 차자인

210) 豐德(풍덕) : 풍덩 (주 22 참조)

211) 件里介(건리개) : 바리개, 발이개. 얼굴이나 그 형상이 바리를 닮음으로 인하여 호칭된 계집종의 이름이다. 앞에 든 “件里同”(바리동)이 사내종의 호칭임에 대하여, 이는 “件里德”(바리덕)과 같이 계집종 호칭의 표기이다. “~同”은 즉 남성의 이름에 관용된 인명 접미사인데, 상대적으로 “~介”와 “~德”은 남성과 여성의 이름에 두루 쓰이면서도 후자의 호칭에 보다 빈도 높게 관용된 인명 접미사이다. (주 56, 151, 176, 260 참조)

212) 毛德(모덕) : 털덩, 털덩이. 다른 사람보다 몸에 털이 많거나 머리털이 많아 더부룩하게 보이는 사람을 두고, 한자 “毛”(털 모)와 “德”(덕 덕)의 음훈에 의해 차자 표기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혹은 털이 많음으로써 덕을 본 사람의 호칭으로도 연상할 수 있다. 그러나 후음절의 “德”은 털이 많음을 상상하기 어려운, 주로 여성에 대한 인명 접미사에 차자되어 관용되어 왔음은 물론, 여기서는 특히 여비(女婢)인 “金德”(쇠덩이)의 경우와 같이 “덩이”(작은 덩어리)의 음차

213) 石乙非(석을비) : 돌비. 앞에 든 “石非”(돌비)의 경우 같은 의미의 계집종 이름의 차자표기이다.

(주 55 참조)

214) 喜今(희금) : 희곰. (주 160 참조)

215) 啓能(계능) : 깨우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을 두고 이른 계집종의 이름인 듯하다.

216) 蛇池(사지) : 뱀못, 배암못. (주 194 참조)

217) 百世(백세) : 장수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명명된 이름의 차자 표기이다. 앞 음절의 한자 “百”(일백 백)은 百伊, 百年 등에서와 같이 인명에 흔히 쓰이는 수 개념의 차자이고, 뒤 음절의 “世”(세상, 백년 세) 역시 긴 세월을 의미하는 인명 접미사이다. (주 39, 144, 272 참조)

218) 等亦中(들여히) : (주 3 참조)

219) 等乙(들을) : (주 4 참조)

220) 文記(문기) : (주 6 참조)

221) 段(든) : (주 84 참조)

222) 安除(안서), 爲去乎(ㅎ거은) : (주 191 참조), (주 107 참조)

223) 并以(값, 아오로), 爲乎矣(ㅎ오디), 耕食(병식) : (주 115 참조), (주 113 참조), 농사를 지어 살아 나가는 것.

224) 乙(을) : ~을, ~를(대격조사)

225) 區處(구처) : 구별하여 처리하는 것.

226) 爲去等(ㅎ거든) : ~하거든.

227) 除良(덜어) : ~하지마라.

228) 爲乎事(ㅎ은일, ㅎ올일) : (주 116 참조)

229) 甘德(감덕) : 검덕, 검둥이, 검덩이. (주 24 참조)

230) 每邑德(매읍덕) : 맵덕. 맵거나 맵살스러운 계집종에 대한 호칭을 음차한 표기이다. “맵다”의 어근 “맵”을 차자하여 2자 표기하고, 거기에 여성명 접미사로 관용하는 “德”을 첨가 기록하여 계집종의 성격을 나타낸 작명이라 하겠다. 따라서 노비명에 나타난 1음절에 대한 2자 차용표기의 예는 앞에 든 노비명 “內隱今”(넌금)의 차자에서 보는 바와 같다. (주 25, 70, 127, 209 참조)

231) 仲介(중개) :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제3자로서 당사자간의 주선을 잘하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계집종 이름에 대한 차자표기이다. 이때의 “介”는 중간에 개입한 사람임을 뜻하면서, 또한 인명 접미사로서의 쓰임과 일치하다는 데에 작명의 차자 표기임을 극명하게 하고 있다.

232) 千年(천년) : 천년토록 오래 장수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명명한 사내종 이름의 차자표기이다. 인명에는 수를 나타낸 한자를 차용한 경우가 많은데, 그중 “千年”을 비롯하여 一, 三, 五, 萬 등은 그 빈도가 단연히 우세하게 나타난다. 한자 千과 萬이 접미사 ~年, ~代와 어울릴 경우는 장수의 의미를 내포한 작명의 예이고, 게다가 “千年劍”(천년쇠)의 노비명은 그러한 의식의 강조가 된 셈이다. (주 16, 59 참조)

233) 春花(춘화) : 봄꽃의 아름다움에 비유해서 부른 계집종 이름의 차자 표기이다. 인명에는 춘, 하, 추, 동 4계절을 인용한 한자의 차용이 많은데, 그중 “春”(봄 춘)의 차자는 절대적이요, 특히 여비의 이름에 압도적으로 나타난다. 이때의 작명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룰 때에 손꼽는 춘화추실(春花秋實)의 반영과 무관하지 않는다 하겠다. (주 68 참조)

234) 水代(수대) : 손, 발, 얼굴을 씻을 때 쓰는 대야, 또는 물을 풀 때에 소용되는 바가지처럼 둥글넓적 하거나, 반구형(半球型)으로 생긴 계집종을 일러 호칭한 이름이다. 여비(女婢)를 훌하게 여기는 작명

의식이 없지 않다. 표준어 대야나 바가지를 남방 방언에서는 주로 “수대”라고 하는 바, 이를 그대로 음차한 이름이다. 여기에는 “물”(水)의 뜻이 내포되어 있고, 뒤 음절에 쓰인 “代”는 또 인명접미사에서 관용하는 차자임을 알게 한다.

235) 庚春(경춘) : 봄에 태어난 사내종의 이름이다. 작명에 보인 한자 “春”의 차자는 여성명에 많은 편이나, 여기서는 출생한 시기를 들어내면서 남성명의 접미사로서 차자된 점이 유별난 느낌을 준다. 작명의 차자에는 또 십간(十干)의 한자 차용이 적지 않은데, 그중 “庚” 역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차자이다. 이곳 이름의 경우는 육감에 의해 “庚”이 드는 해의 봄에 태어남을 의미한 차자 표기로 판단된다. (주 233, 299 참조)

236) 每邑之(매읍지) : 맵지. (주 25 참조)

237) 許叱今(허질금) : 헛금, 헛것. 계집종을 알잡아 이르면서 헛것 같은 사람으로 부르면서 그 호칭을 차자한 이름의 표기이다. “허깨비”를 흔히 “헛것”이라 한다. 이 때의 앞 음절 “허”는 참되지 못하거나 속이 비었음을 나타내는 말의 접두어이다. 이를 표기하는 데에 흔히 촉음(促音) “ㅅ”으로 차자하는 한자 “叱”과 결합시켜 2자 표기를 한 것이다. 뒤 음절의 “것”은 표음상 차자할 한자가 없기도 하지만, 여성 인명 접미사로 관용하는 “今”의 표음과도 유사하여 이같은 한자

238) 奉化(봉화) : 노비의 출생지가 “奉化”이기 때문에 호칭된 이름인 듯하다. 혹은 포구락(拋毬樂)이나 보상무(寶相舞) 등의 궁중무(宮中舞)에서 꽃을 담아주는 일을 하는 봉화(奉花)를 전제한 나머지, 주인을 잘 모시는 여비(女婢)의 호칭을 차자한 작명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때의 “化”는 표음이 같은 “花”의 의음차로서 보다 쓰기 쉬운 한자로 대치한 표기의 이체형(異體形)이 되는 셈이다.

239) 萬眞(만진) : 매우 진실한 사내, 또는 너무 천진(天真)하여 우직한 사람임을 염두하고, 그 호칭을 훈차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노비명에서 수 개념으로 한자 “萬”의 차용이 많음은 이미 지적하였거니와, 여기에는 그 참된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다 하겠다. (주 59 참조)

240) 英三(영삼) : (주 121 참조)

241) 訥只(눌지) : 더듬기, 더듬지. 앞에 든 “訥介”나 “訥之” 등과 동계의 노비명이다. 말을 더듬는 사람을 이르는 “더듬이”는 이의 명사형이다. “더듬다”의 어간에 접미사 “~기”를 덧붙인 “더듬기” 역시 용언의 명사형이다. 위의 “只”는 곧 명사형의 끝음절을 음차한 표기이다. (주 61, 82, 83. 참조)

242) 世龍仇스(세룡구라) : 세룡굴, 시령굴. 땅이나 바위가 깊숙하게 안으로 패어 들어간 곳, 즉 굴(窟)의 이름인데, “굴”은 또 “고을, 골”까지를 포괄해서 이르기도 한다. 위에서 “仇스”는 “仇”(원수 구)와 “스”(羅의 약자, 비단 라)의 결합으로 그 본래의 독음은 “구라”이지만, 1음절인 “굴”을 음차하기 위해 조자 형식으로 2자 표기를 취한 것이다. 그리고 앞 음절의 “世”는 남도 방언에서 “시”라고 발음하던 것의 차자이다. 즉 물건을 올려놓는 “시령”의 음차 표기가 곧

243) 自隱仇스(자은구라), 스同來(나동래) : 잔굴. 땅이나 바위가 패어 들어간 곳 가운데 비교적 작은 굴의 이름이다, 나동래(羅同來). “스”는 성씨의 하나인 “羅”의 약자이다.

244) 大初里(대초리), 億世(억세) : 대추리(大秋里), 억새. 마소의 먹이가 되는 식물, 즉 억새와 같이 거칠고 야성적인 사나이를 이르는 작명이다. 뜻이 굳세고 세차거나, 나뭇잎이 뾰뾰한 것처럼 억센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억세다”의 어간을 차자함으로써 서로 일치한 표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245) 新池(신지) : 새못. 새로 생긴 못이라는 뜻으로 한자 “新”(새로울 신)과 “池”(못지)의 훈에 의해 차자 표기한 못의 이름이다.

246) 分山(분산) : 분외. 한자 “分”(한푼 분)과 “山”(외 산)의 훈차를 통해 호칭한 인명이다. 대상을 흘

하게 여기면서 부른 작명이나 다름이 없다. 인명의 표기에 빈도 높게 차자된 “山”은 십장생(十長生)의 하나로서 긍정적인 차용이 적지 않지만, 여기서는 같은 계열의 인명 가운데, 分介, 分今, 分兒 등의 노비명에 차용된 ~介, ~今, ~兒 등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인명 접미사로서 관용된 예가 된다 하겠다.

(주 38 참조)

247) 池洞(지동) : 못골. (주 90 참조)

248) 矣(의), 金伊德(금이덕) : ~의(소유격 조사), 쇠덕, 쇠덩이. 앞에 든 “金德”(쇠덕, 쇠덩이)과 동계의 여비명의 표기이다. 한자 “金”(쇠 금)은 그 훈이 되는 “ 쇠”의 1자 표기이고, “金伊”는 이에 대한 2자 표기로서 표기 형태의 이형일 뿐이다. “쇠”에 대한 2자 표기는 姜金伊, 金伊江, 雪金伊----등과 같이 노비명에서 흔히 보는 예이다. (주 47, 64, 122, 126 참조)

249) 欣世(흔세) : 하는 일에 긍정적이며, 대하는 사람에게 기쁨(欣)을 느끼게 하는 사내라는 데서 호칭된 이름의 차자 표기이다. 이름의 뒤 음절에 쓰인 “世”는 작명으로 다양하게 차용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곳에서와 같이 인명 접미사로 나타남이 우세하다. (주 138, 144 참조)

250) 欣介(흔개) : 앞에 든 “欣世”를 비롯하여 欣非, 欣今, 欣德----등과 동계의 노비명이다. 뒤 음절의 “介” 역시 작명에 관용되던 음차자로서 여성의 이름에 우세하게 나타나는 인명 접미사의 표기이다. (주 23, 56, 249 참조)

251) 石只(석지) : 돌만이, 돌만이.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있어 의지함이 없이 돌돌하기만 하는 사내를 이르되 한자 “石”(돌 석)과 “只”(다만 지)의 훈을 빌어 차자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돌돌하다”의 된소리 말은 “똥똥하다”이고, 그러하기만 하는 “똥만이”는 이에서 파생된 어휘이다. 이의 사전적 설명은 “범죄 집단에서 부하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범죄 집단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영리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등, 일상 구어에서 그 의미의 내포는

252) 澹伊(담이) : 심심이, 승승이. 음식의 짠맛이 보통보다 덜 가진 상태를 두고 “심심하다”고 한다. 이는 또 할 일이 없이 시간만 보내기가 지루하고 재미없을 때도 통용되는 어휘이다. 옛말이나 방언에서는 “승승하다”고도 이른다. 이 같은 상황을 전제하여 별다른 흥미를 느끼기 어려운 사람을 두고 이른 계집종의 호칭이 곧 “심심이(승승이)”이고, 이의 차자 표기가 “澹伊”이다. 즉 “澹”(싱거울, 승승할 담)의 훈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인명 접미사 “~이”를 덧붙여 “伊

253) 新池(신지) : 새못. (주 245 참조)

254) 自隱仇스(자은구라), 于音來(우음래) : 잔굴. (주 243 참조), 우음네. 평소 명랑하게 잘 웃는 사람을 두고 명명한 호칭의 차자이다. 국어에서 “웃음”(笑)이란 어휘는 우음, 우음 등으로 통용되는데, 이의 음차가 “于音”이고, 여기에 접미사 “네”(사람의 한 무리를 나타내는 말)가 “來”로 음차되어 인명 접미사로 전환한 것이다. 우음, 우음 등의 준말은 또 “음”인 점으로 미루어 “于音”은 2자 1음절 표기로도 볼 수 있고, 이어서 “來”는 다음 설명과의 연결을 위한 앞말의 단순한 접미사

255) 泉谷(천곡) : 샘실. 한자 “泉”(샘 천)과 “谷”(골짜기, 실 곡)의 훈차에 의한 표기이다.

256) 池洞(지동), 反田(반전) : 못골. (주 90 참조), 번전. 논을 밭으로 만드는 것, 또는 그러한 밭.

257) 徐延明(서연명), 金伊江(금이강) : 앞에서 소개한 “延明”에 대하여, 여기서는 그의 성과 이름을 함께 나타낸 표기이다. (주 195 참조), 쇠강, 셋강(강의 분류에서 갈라져 나온 지류) (주 126 참조)

258) 代田(대전) : (주 201 참조)

259) 承重衿(승중깃), 加叱非(가질비) : 승중뿔. (주 10, 111 참조), 더질비. (주 146 참조)

260) 件里德(건리덕) : 바리덕, 발이덕. 밥그릇의 일종인 바리를 닮은 계집종 이름의 차자 표기이다. 件

里同(바리동), 件里介(바리개) 등과 동계의 노비명이다. 끝 음절의 “德”은 여성의 이름에 빈도 높게 관용하는 인명 접미사이다. (주 176, 211 참조)

261) 古非(고비) : 헌비, 헌년. 노비명에서 빈도 높게 차용되던 한자 “古”(옛, 헌 고)의 훈으로 미루어 계집종을 험하게 알잡아 이르면서 “헌년”이라 지칭하던 것이 인명으로 간주되어 표기되었다 하겠다. 뒤 음절의 한자 “非”는 여성 명칭의 접미사로 관용하던 차자인데, ~女, ~年, ~連 등의 차자 표기와 호용되면서 “년”의 차자에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한자 “古”는 또 인명에서 대부분이 음차되어 나타난다. 뒤 음절의 접미사 “~非”(아닐 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점

262) 善金伊(선금이) : 선쇠. 마음씨 착하고 선량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내가 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호칭한 사내종의 이름으로 보인다. 한자 “善”(좋을, 착할 선)은 일상의 구어에서 이미 그 독음으로 널리 통용된 말이므로 여기에서도 음차한 표기로 생각된다. 그리고 “金伊”는 한자 “金”(쇠 금)의 훈을 좇아 1음절 2자 표기를 취한 예이다. 흔히 1자 표기로 차자되는 “~金”과 함께 널리 통용된 인명 접미사의 표기이다. 또한 굴조개를 따는데 쓰는 쇠로 만든 갈고리를 “조새”

263) 大初里(대초리) : 대추리(大秋里)

264) 甘德(김덕) : 검덕, 검둥이 검덩이. (주 24 참조)

265) 李石(이석) : 이돌이, 이도리. 무당들이 “돈”을 일러 말하는 “이도리”를 인명의 호칭으로 삼은 노비명의 음차자이다. 한자 “李”(오얏 리)의 독음과 “石”(돌 석)의 훈을 빌어서 표기한 것이다. 인명의 차자에 대표적으로 관용하던 “石”은 음차보다 훈차의 경우가 많은데, 인명에서는 1자 표기로서의 “石”보다 “石乙”의 2자 표기가 많음은 물론, 그것은 또 인명의 접미사로서의 첨기가 더 우세한 편이다. 따라서 이곳 이름의 “石”은 그 훈과 상관없이 “돌”, 또는 “도리

266) 斤伊(근이) : 도끼. 한자 “斤”(도끼 근)의 훈을 빌어서 호칭한 사내종 이름의 차자 표기이다. 뒤 음절의 “伊”가 인명 접미사로서 관용된 차자임은 이미 말한 山伊, 良伊 등의 인명에서 지적인 바와 같다. (주 38, 45 참조)

267) 大福(대복) : 한복. 크게 복 타기를 바라는 뜻에서 명명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차자된 두 글자는 다 함께 인명에 관용된 대표적인 한자인데, “大”(큰 대)는 옛말 “하다”(많다, 크다)의 훈차이다. 주로 좋은 운명을 바라는 길명 의식의 반영으로 작명한 예이다.

268) 有德(유덕) : 덕 있는 사람을 유덕자(有德者)라고 하는 바, 것처럼 덕성을 갖춘 자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명명한 계집종 이름의 차자 표기이다. 인명에 관용되던 “德”의 차자는 다양하게 쓰였으므로 인명으로서의 차용이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길명 의식에서 인륜의 덕을 추구하는 의미로 호칭된 작명의 표기라 하겠다. (주 22, 127 참조)

269) 香蘭(향란) : 향난. (주 173 참조)

270) 香今(향금) : 여성스러운 향기 풍기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호칭된 계집종 이름의 차자 표기이다. 뒤 음절의 “今”은 곧 인명 가운데 여성 이름의 접미사로서 관용된 대표적인 차자이다. (주 54 참조)

271) 英代(영대) : 주로 꽃부리 또는 영웅의 뜻으로 차자되는 한자 “英”이 작명으로 차자될 때, 전자의 경우는 여성의 이름에, 후자의 경우는 남성명에 많은 편이다. 이곳은 바로 전자의 경우로서, 꽃의 아름다움을 내세워 호칭한 여비명의 표기이다. 아울러 “代”는 玉代, 銀代 등의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명 접미사로서의 차자이다. (주 59, 136, 150 참조)

272) 百伊(백이) : 백세토록 오래 살기를 바라는 뜻에서 호칭한 사내종 이름의 표기이다. 작명에서 흔

히 보는 수 개념의 차자 가운데 한자 百, 千, 萬----등은 흔히 장수 관념에서 이르는 호칭인데, “百伊” 역시 그중의 하나이다. 아울러 뒤 음절의 “伊”는 인명접미사로서 빈도 높게 쓰인 대표적인 차자이다.

(주 39, 149 참조)

273) 英三(영삼) : (주 121 참조)

274) 注叱沙里(주질사리) : 죽사리. 일에 임하면 모질게 힘을 다하는 사내, 죽살이치는 사내종을 두고 호칭한 이름의 차자 표기이다. 한자 “叱”의 표기는 주로 촉음(促音) ㅅ의 차자로 관용되었지만, 여기서는 “注叱德”(죽덕), 또는 “注叱同”(죽동) 등의 인명에서와 같이 앞 음절의 ㄱ중성으로 차용되는 일종의 조자식(造字式) 표기이다. “죽살이”(죽고 삶을 다투는 인생)는 구어에 따라 죽사리, 죽살 등으로 통용되는 바, 이같은 어휘의 음차 표기가 곧 “注叱沙里”이다. 따라서 “살이”

275) 心通毛老(심통모로) : 심술머, 심술머리. 심술이 사납거나 심한 사람을 알잡아 일컬은 차자 표기이다. 심통(心通)은 “심술”의 유사어이고, 심술머리, 심술머, 심술딱지, 심술꾼----등의 어휘는 이로 말미암은 파생어들이다. 이어서 접미사 “~머, ~머리”를 근사한 표음으로 음차하여 2자 표기한 것이 “毛老”라 하겠다.

276) 分山(분산) : 분외. (주 246 참조)

277) 新池(신지) : 새못. (주 245 참조)

278) 多勿沙里(다물사리) : 담사리. 남의 집에 머슴살이하는 사람, 즉 “담살이”를 음차하여 표기한 이름이다. “多勿”은 “담”의 2자 표기이고, “沙里”는 “注叱沙里”의 명칭에 보인 바와 같이 접미사 “~살이(~사리)”의 음차 표기이다. (주 274 참조)

279) 樓門(누문) : 다락집 밑으로 드나들게 된 문, (주 34 참조)

280) 化字(화자), 代田(대전) : 상대방 여자를 알잡아 호칭하되 “동냥아치(동냥치)”, 또는 “거지(거러지)”라 이른 데서 한자 “化”(중이 동냥할 화)와 “字”(암컷 자)의 훈을 좇아 차자한 이름의 표기이다, (주 201 참조)

281) 池洞(지동) : 못골. (주 247 참조)

282) 古川(고천) : 옛내. 한자 “古”(옛고)와 “川”(내천)의 훈을 좇아 차자한 표기이다.

283) 矣(의), 道山(도산) : ~의, 출생한 마을 이름으로 연유하여 호칭된 사내종의 이름인 듯하다. 뒤 음절의 “山”은 지명 접미사로서 유별나게 많이 나오는 대표적 차자이다. (주 38, 246 참조)

284) 貴代(귀대) : 귀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뜻에서 호칭된 여자 노비 이름의 표기이다. 貴福, 富貴 등의 인명과 같이 좋은 운명의 소망을 반영한 길명 의식(吉名意識)에서 말미암은 작명이라 하겠다. 뒤 음절의 “代”는 인명 접미사의 표기로서, 특히 여성의 이름에 많이 쓰인 접미사의 차자 표기이다. (주 15, 72, 150, 203 참조)

285) 順代(순대) : 거역함이 없이 잘 따르는 온순한 계집을 일러 호칭한 여비의 이름이다. 인명 접미사로 관용되어온 “代”는 주로 여자 이름에서 많이 보는 차자 표기이다. (주 15, 136, 150 참조)

286) 烟花(연화) : 봄철에 안개가 끼어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는 연화를 연상시켜 호칭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뒤 음절의 “花”(꽃 화)는 흔히 여자 이름의 접미사로 음차한 표기이다.

287) 寶川(보천) : 보배내. 태어난 곳이 “보배내”이므로 그 곳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호칭한 계집종 이름의 표기이다. “寶川”은 본래 한자 “寶”(보배보)와 “川”(내천)의 훈차에 의해 불러진 시내의 이름이다. 한자 “寶”의 훈만을 그대로 이름으로 삼아 차자 표기한 경우는 寶培, 寶排, 寶盃----등에서와 같이 흔히 보는 예이다.

288) 陳海(진해) : 목해. 글씨를 쓰는 데에 버루의 먹을 가는 등 그 시중을 잘 드는 사내종의 호칭에서 연유한 표기인 듯하지만 속고를 요한다. 이같은 추측이 가능하다면 “陳海”는 버루의 별칭으로 이르는 “墨海(목해)”의 이체 표기가 되는 셈이다. 한자 “陳”(목을 진)의 훈과 “海”(바다 해)의 표음을 빌어서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목해(墨海)를 달리 표기한 이체의 한자어 “陳海”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89) 新池(신지) : 새못. (주 245 참조)

290) 乎音橋九스(호음교구라) : 흙다리 굴. 한자 “乎音”은 2자 1음절 표기로서 “흙”(오목하고 길게 패인 부분)에 대한 음차이다. 이어서 “橋”는 그곳에 있는 “다리”에 대한 훈차이다. 아울러 “九”라는 한자 표기는 1음절인 “굴(窟)”을 음차하되 2자 표기를 취한 것이다. 그리고 “스”는 한자 “羅”의 간체자로서 앞 음절의 종성 표기로 채택된 차자이다. (주 242, 243 참조)

291) 池洞(지동) : 못굴. (주 247 참조)

292) 寺洞(사동) : 절굴. 한자 “寺”(절 사)와 洞(고을 동)의 훈을 좇아 차자한 고을 이름의 표기이다, 천자문. 즉 글을 안다는 뜻에서 호칭된 이름인 듯하다.

293) 泉谷(천곡) : 샘실. (주 255 참조)

294) 本無里洞(본무리동) : 옛 물굴. 본 분재기에 “無里洞”이라 한 고을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이곳은 옛 물골임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주 313 참조)

295) 代田(대전) : (주 201 참조), (주 84 참조)

296) 以乎(이온), 等(든, 들), 用良(써), 以乎等用良(이온것써) : ~으로는, ~인. 것, 줄(형식 명사) ~ (으로)써. 써서, 써. (조격조사) ~인 것으로써.

297) 衿付(깃부), 不冬(안돌), 爲有齊(흐잇재) : 몯을 나누는 것. 나누어 준 몯. ~안, ~아니(부정사) ~하였다, ~하였습니다.

298) 水代(수대) : (주 234 참조)

299) 甲春(갑춘) : 일년 중 으뜸으로 여기는 생동하는 봄의 느낌을 담아 호칭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한자 “甲”은 십간의 으뜸이요, 인명에 빈도 높게 인용된 “春” 역시 4계절의 으뜸이라는 데서 좋은 운명을 바라는 길명 의식으로 말미암은 작명의 차자표기이다. 이를 또 “庚春”이라 한 인명과 상대적인 호칭으로 보면, 육갑(六甲)에 의해 “甲”이 드는 해의 봄에 출생한 아이라 해서 곧 그 호칭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주 68, 137, 235 참조)

300) 斤伊(근이) : 도끼. (주 266 참조)

301) 壽福(수복) : 장수하고 복되기를 바라는 길명 의식에서 호칭된 사내종의 이름이다. 노비명 가운데 貴福, 福壽, 善福----등과 같은 계열의 작명이라 하겠다. (주 72, 62, 302 참조)

302) 福壽(복수) : 복되고 장수하기를 바라는 길명 의식에서 호칭된 계집종의 이름이다. 앞에 든 壽福과 동계의 작명이다. (주 301 참조)

303) 彭伊(팽이) : 아이들이 얼음판이나 길바닥에서 굴리며 노는 팽이를 음차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뒤 음절의 “伊”는 인명의 접미사로 유별나게 관용된 음차자이다. (주 38, 381 참조)

304) 雪非(설비) : 설운비, 한자 “哀”(슬플 애)의 뜻을 가진 어휘 서럽다, 설다, 섣다 등의 어간을 한자 “雪”(눈설)로 음차하고, 거기에 여성 인명 접미사의 차자로 관용하는 한자 “非”를 첨가시킨 계집종의 표기이다. 남자 선호 사상에서 딸을 생산하고 섭섭하여 “섭섭이”, 서운하여 “서운네”, 서러워서 “설운네”라 하던 것과 유사한 호칭의 차자 표기이다. 한편 위에 든 어휘의 어간 서럽, 설, 섣 등이 관형형으로 활용될 때 그 발음은 서러운, 설은, 설운 등으로 나타나

305) 進福(진복) : (주 35 참조)

306) 銀今(은금) : 금은보배처럼 귀하게 여긴 데서 말미암은 호칭이 아니면, 은빛처럼 곱고 예쁜 계집종을 두고 음차 표기한 이름이다. 뒤 음절의 “今”은 인명 접미사로서, 특히 여성의 작명에 관용되던 음차자이다. 노비명 가운데 銀代, 銀介 등은 인명의 접미사만 달리하였을 뿐 이와 동계의 작명인 것이다. (주 36, 54, 150 참조)

307) 萬代(만대) : (주 59, 132 참조)

308) 春金伊(춘금이) : 춘쇠. 앞 음절에 차자된 “春”(봄 춘)의 용례와 그 의미는 인명 “春文”의 소개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며, 접미사 “~쇠”를 차자한 “金伊”는 雪金伊, 善金伊, 金伊江 등 인명의 소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주 47, 68, 122, 126 참조)

309) 仁孫(인손) : (주 34 참조)

310) 反畚(반답) : 반답. 밭을 논으로 만드는 것, 또는 그러한 논.

311) 夜未(야미) : 야미(夜味). 배미(논배미의 준말)의 취음(取音)

312) 可羅谷來(가라곡래), 屯田(둔전) : 가라실내. 한자 “谷”(고을, 실곡)은 인명이나 지명에서 주로 훈차된 표기로 나타난다. “샘실”을 “泉谷”으로 차자 표기한 예와 같다. (주 255 참조), (주 88 참조)

313) 無里洞(무리동) : 물골. 물이 흐르는 골짜기, 또는 물이 많아서 붙여진 고을 이름이다. “無里”는 한자 “水”(물수)의 훈을 좇아 2자 표기한 예이고, 말음절의 표기는 “洞”(골동)의 훈을 좇아 그대로 옮긴 차자 표기이다. (주 294 참조)

314) 銀海(은해) : 은빛처럼 곱고 아름다운 바다를 연상하여 호칭으로 삼은 표기로 보인다. 혹은 금은보배를 많이 타고 자라서 좋은 우명 누리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작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15) 代田(대전) : (주 201 참조)

316) 山非(산비) : 산처럼 든든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음차 표기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뒤 음절의 “非”는 인명 접미사 중 특히 여비의 이름에 관용되던 차자이다. 사내종의 이름인 “山伊”와는 그 접미사만 다를 뿐이다. (주 38 참조)

317) 봉화(봉화) : (주 238 참조)

318) 業介(업개) : 우연히 얻어 기른 아이라는 데서 붙여진 계집종의 이름이다. 원래 “업동이”(집 앞에 버려져 있거나 우연히 얻거나 하여 기른 아이)를 음차자한 “業同”, 또는 “業同伊” 등의 이름이었음은 물론, 그 약칭으로 생긴 “業伊”라 한 호칭을 비롯하여, 인명 접미사만을 달리한 業介, 業石乙 등이 아울러 인명으로 차자되어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뒤 음절의 “介”는 인명에 흔히 쓰는 접미사로서 여성의 이름에 더 관용된 차자 표기이다. (주 23, 56, 9)

319) 思郎介(사랑개) : 사랑받을 아이를 귀엽게 여긴 데서 연유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사랑동이”와 유사한 호칭이다. 이는 思郎今, 思郎孫 등의 노비명과 같은 계열의 인명 차자 표기이다. 말음절의 “介”는 여성의 이름에서 유달리 많이 쓰이던 여성명의 접미사이다. (주 318 참조)

320) 雙伊(쌍이) : 쌍생녀(雙生女)로 태어난 아이라는 뜻으로 부른 계집종의 이름이다. “쌍동이”라 한 어휘에서 “동”(童)의 의미로 말미암은 “동”(동)의 생략이 “쌍이”이니, 여자의 부름으로 보면 으레 있을 수 있는 호칭이다. 뒤 음절의 “伊”는 인명 접미사로서 유달리 여성의 이름에 많이 차용된 접미사의 표기이다. (주 38, 303 참조)

321) 命長(명장) : 살아가는 데에 목숨 길기를 바라는 장수의 소망으로 호칭한 노비명의 훈차 표기이다. “命”(운명, 목숨 명)의 복이 있기를 위하여 “命福”이라 하고, 또한 장수의 덕이 있기를 바라며 “命

德”이라 하는 등, 인명에는 좋은 운명에 대한 소원이 적지 않게 반영되었음을 본다. 인명에 한자 “命”의 차용이 유달리 많은 이유를 짐작케 한다.

322) 九月(구월) : 1년 중 9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월”이라 부름으로써 그 호칭이 된 계집종 이름의 차자 표기이다. 출생한 시기를 들어 작명으로 호칭된 노비명을 보면 1년 열두 달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1월, 2월, 3월----등, 12월을 제외한 각 달의 차자가 모두 그 이름에서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다.

323) 卽百(즉백) : 장수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불려진 사내종의 이름으로 보인다. 한자 “卽”(나아갈, 곧 즉)과 “百”(일백 백)의 훈을 영두하고, 표음(表音) 그대로 호칭한 이름의 표기로 생각된다.

324) 蛇池(사지), 金野(금야) : 뱀못, 배암못. (주 194 참조), 쇠메. 한자 “金”(쇠, 금금)과 “野”(들, 메 야)의 훈을 좇아 차자한 들 이름이다. “金”은 흔히 쇠처럼 단단함을 말할 때의 훈독 차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특히 관습적으로 소중함을 뜻하는 “금”으로까지 의미 확대가 이루어진 차자로 파악된다.

325) 仇萬倍(구만배) : 궁베, 궁벙이. 벌레의 일종인 궁벙이처럼 동작이 몹시 느린 사람의 호칭을 알잡아 음차하여 이른 노비명이다. 한자 “萬”은 앞 음절의 종성에 첨가됨으로써 “仇萬”의 두 자는 “궁”의 차자가 되고, 끝 음절인 “倍”는 “벙이(빙이)”, 또는 “베(배)” 등의 음차로 동원된 것이다. 표준어인 “궁벙이”가 방언에 따라 궁배이, 궁베, 궁베이, 궁비, 궁빙이----등 다양한 어형으로 쓰임을 볼 때, “仇萬倍”는 그중의 어느 하나를 음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26) 石橋(석교) : 돌다리. 한자 “石”(돌석)과 “橋”(다리교)의 훈을 좇아 차자한 다리의 이름이다.

327) 泉谷(천곡) : 샘실. (주 255 참조)

328) 屯田(둔전) : (주 88 참조)

329) 福壽(복수) : (주 302 참조)

330) 本無里洞(본무리동) : 옛 물골. (주 294 참조)

331) 恩石(은석) : 은돌. 은혜롭게 태어난 고마운 아이라는 뜻에서 부른 사내종의 이름이다. 노비명에 빈도 높게 차용된 한자 “石”(돌석)은 주로 남자 이름의 접미사로서 더욱 관용된 차자이다. 아울러 이는 三石과 三石乙, 山石과 山石乙, 夢石과 夢石乙----등에서처럼 접미사 “石乙”과 함께 수다하게 공용한 것으로 보아 주로 훈독된 차자임을 알 수 있다. (주 152 참조)

332) 菊花(국화) : 가을의 대표적인 꽃으로 손꼽는 향기로운 국화, 사군자(四君子)의 하나로서, 또는 오상고절(傲霜孤節)의 화훼(花卉)라 하여 기리는 식물인데, 이를 계집종의 이름으로 부른 호칭의 차자 표기이다.

333) 都致(도치) : 도끼. 나무를 찍거나 팠 때 쓰는 연장, 즉 도끼를 이름으로 대신하여 호칭한 사내종의 표기이다. “도끼”는 옛말로 ”도치“로 전하고, 방언에서는 주로 ”도치“로 통용되는데, 이를 음차한 표기가 ”都致“이다. 기구류(器具類)를 인명으로 한 노비명에 한자 ”斤“(도끼 근)의 훈을 좇아 부른 ”斤伊“도 있음을 본다. (주 266 참조)

334) 漢今(한금) : 앞에서 이미 소개한 漢丁, 漢世 등이 사내종임에 대하여, 이곳 “漢今”은 계집종의 호칭일 뿐 같은 계열의 이름이다. 따라서 뒤 음절의 “今”은 인명 접미사에 많이 차용된 여성명 접미사의 차자 표기이다. (주 54, 66, 138 참조)

335) 萬代(만대) : (주 59 참조)

336) 春福(춘복) : 운이 좋기를 바라는 길명 의식에서 호칭된 사내종 이름의 차자표기이다. 인명 차자에 대표적인 한자 “春”(봄춘)과 “福”(복복)의 합성으로 작명된 유사한 노비명의 소개는 앞에서 수차 지

적한 바와 같다. (주 68, 70, 79, 233 참조)

337) 玉代(옥대) : 구슬. (주 136 참조)

338) 銀介(은개) : 앞에 든 銀代, 銀今과 동계의 계집종 이름으로서, 뒤 음절에 첨기된 접미사만이 이체(異體)의 표기일 뿐이다. “介”는 즉 인명 접미사 가운데 대표적인 차자로서 “代”나 “今”과 같이 주로 여성의 이름에 관용된 표기이다. (주 23, 56, 150, 306 참조)

339) 美代(미대) : 앞 음절의 한자 “美”(아름다울 미)가 뜻한 대로 예쁘고 아름다움을 내세운 계집종 이름의 차자 표기이다. 이름 들어내기를 바라는 호명 의식(好名意識)의 반영이라 하겠다. 아울러 뒤 음절의 “代”는 인명 접미사에서 흔히 보는 차자임을 石代, 萬代, 玉代, 銀代 등의 소개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주 15, 59, 138, 150 참조)

340) 林代(임대) : 수풀, 숲대. 한자 “林”(수풀, 더북더북할 림)의 훈을 취하여 거기에 인명 접속사를 접속시켜 호칭한 계집종 이름의 표기인 듯하나 속단하기 어렵다. 뒤 음절에 차자되어 표기된 “代”의 용례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주 339 참조)

341) 屯田(둔전) : (주 88 참조)

342) 乎音橋(호음교), 銀海(은해) : 홀다리. (주 290 참조), (주 314 참조)

343) 允石(윤석) : 윤돌, 윤돌이. 앞 음절의 한자 “允”(진실로, 마땅할 윤)의 훈으로 미루어 진실하고 믿음직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호칭한 인명의 차자로 보인다. 노비명에 적지 않게 차자된 한자 “允”은 允介, 允金, 允男, 允實----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독음이 이미 익혀져 그대로 음차한 표기로 보인다. 이에 대해 후음절의 한자 “石”(돌석)은 인명에서 흔히 쓰는 접미사의 용례로 보아 훈차에 의한 표기이므로, “允石”은 곧 “윤돌”의

344) 代田(대전), 并以(궤, 아오로) : (주 201 참조), (주 115 참조)

345) 孫同(손동) : 손동이. 순하거나 겸손한 아이를 귀엽게 여겨 부른 사내종의 이름이다. 한자 “孫”(겸손할, 순할 손)의 뜻을 염두하여 호칭한 인명이므로, 접미사 “~동이”(어떤 특징을 가지는 사람을 귀하게, 또는 흘하게 여기는 말)는 “~동이”의 표준어인 바, 이를 1자로 음차하여 한자 “孫”과 접속시킨 표기가 이곳 “孫同”이다. (주 20, 43 참조)

346) 姜孫(강손) : 강손이. 몸이 튼튼하고 성격도 강한 종을 두고 이른 호칭이다. 한자 “姜”(강할 강)과 “強”(강할 강)은 동의 동음자(同義同音字)로서, 앞에 든 姜金伊, 姜豊 등의 차자에서 보는 “姜”과 같은 뜻의 차자이다. 아울러 “孫”은 상대방을 낮추어 이를 때에 쓰는 접미사 “~손”의 차자이다. (주 14, 122, 123 참조)

347) 莫介(막개) : 막개. 여자의 생산이 이만 마감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나온 계집종 이름의 음차 표기이다. 즉 어휘 “막다”(防)의 어간이 명사형 접미사 “~애”에 연음화되면서 나타난 어휘 “막개”를 음차자한 표기이다. 앞에서 언급한 莫只, 莫今 등과 동계의 인명이다. 아울러 뒤 음절의 “介”는 인명 접미사로 관용된 차자인데, 특히 여자의 이름에 우세하게 나타나는 표기임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주 87, 140, 187 참조)

348) 銀代(은대) : (주 150 참조)

349) 環伊(환이) : 도리. 본래 이름이 없었던 어린애가 귀엽게 도리도리(어린애가 어른이 시키는 대로 머리를 좌우로 잘 흔드는 재롱)를 잘하므로 인명처럼 호칭되면서 자리잡은 사내종의 이름이다. 앞 음절의 한자 “環”(도리옥 환)은 그 훈에 나타나는 “도리”로 말미암아 이름의 차자 표기가 되었으며, 뒤 음절의 “伊”는 인명의 대표적인 접미사로서 말음절의 첨가형으로 차자된 표기이다.

350) 一代(일대) : 계집종의 이름으로서, 한평생 자랑할 예쁜 여자라는 데서 연유한 호칭인 듯하다.

351) 一介(일개) : 한개. 계집종을 알잡아 이르면서 한자어의 뜻 그대로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일컫는 데서 나온 호칭의 차자라고 하겠다. 뒤 음절의 “介”는 인명 접미사 중 유달리 관용하던 차자로서, 특히 여성의 이름에 우세하게 나타나는 차자 표기이다. (주 23, 151 참조)

352) 一定(일정) : 한자어의 뜻이 지시하는 대로 모양과 크기, 혹은 하는 행동이 한결같다는 데서 호칭된 계집종 이름의 차자로 생각된다.

353) 一春(일춘) : 여자의 출생을 부정적으로 여긴 나머지, 한때의 봄에 불과하다고 알잡아 이름으로 말미암아 호칭된 계집종 이름의 차자로 보인다. 또한, 비록 천한 계집종으로 출생하였지만, 한때의 봄처럼 여겨진다는 데서 호칭한 이름의 차자로도 생각할 수 있다.

354) 終伊(종이) : 마침이, 마치미. 남자 선호 사상에서 여자의 태어남을 그만 마치기를 바라는 뜻에서 호칭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마침”은 곧 “마치다”(終)의 명사형이다. 고어에서 보는 “마춤”(마침, 악곡의 끝을 나타내는 말)이나 부사인 “마춤내”(마침내)는 곧 이로부터 파생한 어휘이다. 따라서 “終”은 “마침”의 훈차이고, “伊”는 앞 음절의 종성에 음편상 후속되는 “이”의 음차로서, 인명에 흔히 쓰는 접미사의 표기를 겸한 결과가 된 셈이다.

355) 億壽(억수) : 한자 “億”(억 억)과 “壽”(목숨 수)를 취하여 한자어의 훈이 뜻하는 그대로 무한히 오래도록 장수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사내종의 이름이다. 병이 생겨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단명(短命)만을 한(恨)하는 시대에 좋은 운명을 바라는 길명 의식의 반영인 셈이다.

356) 金山(금산) : 쇠뿔. 한자 “金”(쇠 금)과 “山”(뿔 산)의 훈을 빌어서 호칭한 사내종의 이름이다. 한자어의 의미로 보면 금광(金光, 금빛)을 뜻하는 어휘이기도 하다. 아울러 “山”은 십장생(十長生)의 하나로 칭송된 데서 장수를 바라는 작명으로 유별나게 많이 나타나고, 특히 인명 접미사에서의 쓰임이 우세하다. 혹은 “쇠뿔”라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한 이름일 수도 있으나 속단하기 어렵다. (주 38 참조)

357) 命仇知(명구지) : 망구지. 시루의 구멍을 막아 그 안의 것이 새지 않도록 하는 “시룻밀”을 달리 “망구지”라고 하는데, 이를 호칭으로 삼아 부른 사내종 이름의 음차 표기로 짐작된다. 노비명으로 알려진 “亡仇知”와 동계의 인명으로서, 이의 의음적(擬音的) 표기로 생각된다.

358) 莫山(막산) : 막뿔.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들, 즉 막내를 이룬 데서 차자 표기된 사내종의 이름이다. 앞 음절의 “莫”은 “마지막”의 뜻으로 쓰인 접두어 “막~”의 음차이고, 십장생의 하나로 장수를 상징하는 뒤 음절의 “山”은 남성의 이름에 많이 쓰인 차자이다. 한편 “莫”(저물 모)와 “暮”(저물 모)를 동일한 음훈의 이체(異體)로 본다면, “莫山”(모산)은 해질 무렵의 으스스한 산을 뜻하는 한자어가 되므로, 혹은 해질 무렵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의 호칭으로

359) 命山(명산) : 명뿔. 수명이 산처럼 오래가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명명한 사내종의 이름이라 하겠다. 한자 “命”(목숨, 명 명)의 음훈과 십장생의 하나로 장수를 상징하는 “山”(뿔 산)의 훈을 빌어서 차자 표기한 것이다. 이의 작명 의도는 인명 가운데 “命長”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주 321 참조)

360) 石乙非(석을비) : 돌비. 노비명으로 전하는 “石非”(돌비)와 같은 의도에서 호칭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주 55, 213 참조)

361) 奇連代(기련대) : 기년. 약빠르고 재주 많은 여아를 훌하게 이룬 데서 나온 호칭이다. 이는 “奇連”과 “奇代”를 동시에 예시하면서, 3자 표기가 되어버렸지 않으면, “奇連”에 여성 이름의 접미사로

관용하는 “代”를 첨가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連”은 의존명사 “년”(계집을 낮추거나 멸시하여 이르는 말)의 음차 표기이다. 노비명에 쓰인 차자 표기 중 女, 年, 延 등이 “連”과 함께 흔히 “년”의 차용자로 표기됨을 미루어 이는 의심되지 않는다. 남아를 이르는 “奇童”(기

362) 銀介(은개) : (주 338 참조)

363) 禮孫(예손) : 예의바른 후손, 또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부른 사내종 이름의 표기이다. “예”(禮)는 오상(五常)의 하나이므로 이는 인륜을 뜻이 반영된 이름이라 하겠다.

364) 知劫德(지겁덕) : 지겁덩이, 지겁둥이. 마음이 튼튼하지 못하여 정신없이 허둥지둥하거나 겁이 많은 아이를 두고 호칭한 계집종의 이름이다. 표준어 “허겁하다”(마음이 실하지 못하여 겁이 많은 것), 또는 “허겁지겁하다”를 지방에 따라 “지겁하다”라고 이르는데, 구어에서는 후자가 더 널리 통용되고 있다. “知劫”은 이때의 어간 “지겁”을 음차한 표기이다. 그리고 끝 음절의 “德”은 “同, 童”과 같은 인명 접미사로서 “~덩이”, 또는 “~둥이”의 차자 표기이다. (주 20,

365) 良伊(양이) : 어질이, 어지리. (주 45 참조)

366) 仍毚同(잉읍동) : 늙동, 늙둥이. 너그럽고 활달하여 늙늙한 사내종을 두고 호칭한 인명의 표기이다. “仍毚”은 곧 두 자에 의한 “늙”의 차자 표기이다. “毚”(고을 읍)은 또 그 독음의 종성인 “ㅂ”의 취음으로서 앞 음절의 말음에 연결시킨 것으로 노비명 “每毚德”(맷덕)에서 보는 “毚”의 표기와 같다. 따라서 “仍毚”은 종래 仍毚先, 仍毚壯 등의 인명에서와 같이 “늙”의 표기로 익히 차자된 표기이다. 아울러 인명 접미사에 관용되던 “同”은 “童”의 표기와 호용되면서 접미

367) 甘金伊(감금이) : 감쇠. 얼굴이나 살빛이 검은 사람을 두고 이르는 사내종의 이름이다. 형용사 “감다”와 “검다”는 그 강약에 따라 음운의 호용으로 달리 쓰일 뿐, 어원은 “黑”(검을 흑)의 뜻에서 말미암은 어휘이다. 때문에 甘金伊, 甘德, 儉孫, 檢之 등의 노비명은 다 같이 감둥이, 검둥이 등에 대한 차자 표기이다. 아울러 뒤 음절의 “金伊”는 “金”(쇠 금)과 같은 훈차 표기로서, 姜金伊, 雪金伊, 春金伊 등의 인명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남성의 이름에 빈도 높게 관용된

368) 春今(춘금) : 춘, 하, 추, 동 네 계절 중 으뜸으로 손꼽는 봄을 작명에 인용함으로써 좋은 운명 누리기를 바라는 길명 의식의 반영이라 하겠다. 앞 음절의 “春”(봄 춘)은 한자의 차용 빈도 면에서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리고 뒤 음절의 “今”은 인명에 널리 쓰이던 여성 이름의 접미사 표기이다. (주 54, 79, 68, 336 참조)

369) 甌岩(증암) : 시루바우, 시루바위.

370) 段(든), 以(으로), 衿(깃), 不冬(안둘) : (주 84 참조), ~으로. (구격조사), (주 10 참조), 아니(부정사)

371) 除軍(제군) : 섬돌꾼. 섬돌(돌층계)의 일에 능한 일꾼을 이르는 데서 말미암은 사내종의 이름이다. 한자 “除”(섬돌 제)와 “軍”(일꾼 군)의 훈을 빌어서 호칭한 인명의 차자 표기이다.

372) 軍非(군비) : 꾀비. 사내 일꾼처럼 일 잘하는 계집종을 두고 이르는 데서 그 호칭이 되어 표기된 노비명이다. 종래에 남자가 남의 집에 머슴 노릇을 하거나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 하였다. 이곳 “軍非”는 여자로서 그러한 일꾼이나 다름없이 일에 능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따라서 뒤 음절의 “非”는 能非, 加叱非, 同叱非 등의 소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의 이름에 관용되던 인명 접미사의 차자 표기이다. (주 12, 81 참조)

373) 奉化(봉화) : (주 238 참조)

374) 愛丁(애정) : 사랑스러워 다정하게 여겨지는 사내종의 이름이다. 사랑하는 여자종을 애비(愛婢)라

고 이름에 대하여 ,이는 남자종에 대한 호칭의 차자 표기이다. 뒤 음절의 한자 “丁”(부리는 사람 정)은 곧 남자 노비명에 관용하는 인명 접미사의 표기이다.

375) 安除(안서) : 아니. (금지의 뜻인 부정사)

376) 寺洞(사동) : 절동. (주 292 참조)

377) 孚音橋(호음교), 戒倫(계륜) : 흠다리. (주 290 참조), 세상살이를 조심하며 인륜을 잘 지켜 나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호칭한 인명으로 보인다. 한자 “戒”(조심할, 지킬 계)와 “倫”(인륜, 떳떳할 륜)을 합성한 이름인 점으로 미루어 교시적인 작명이라 하겠다.

378) 場門(장문) : 조선 초기에 발달하기 시작한 상설 시장. 군역(軍役)이나 조세(租稅) 등을 피하여 도망한 농민들이 모여 이룬 것으로, 국가의 금압(禁壓)을 받았다.

379) 恩石(은석) : 은돌. (주 331 참조)

380) 萬花(만화) : 예쁜 계집종을 두고 이르던 노비명의 표기이다. 앞 음절의 한자 “萬”(일만 만)은 인명에 많이 쓰이는 수 개념의 한자 중 대표적인 차자이고, “花”(꽃 화) 역시 아름다움의 상징적 표시이므로, 이곳 이름은 한자어에서 뜻하는 “萬花”(여러 가지 꽃)를 염두한 호칭이 되는 셈이다.

381) 平介(평개) : 팽개, 팡개. 논이나 밭에서 새를 쫓는 데에 쓰는 “팡개”에 비유하여 계집종을 활하게 호칭한 데서 연유한 노비명의 차자 표기이다. 남도 방언에서 “팡개”를 “팽개”라 하고, “팡개치다”는 “팽개치다”로, “팔매”(조그만 돌 따위를 멀리 던지는 일)를 “펼매”라고 하는 등, 다양한 파생어가 있는데, 이러한 말의 “팽개”가 “平介”로 음차 표기되었다 하겠다. 아울러 “介”는 인명 접미사 중 흔히 여성명의 접미사에서 보는 차자임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

382) 廣石(광석) : 넓돌, 넓돌이. 얼굴 넓직한 아이를 두고 호칭한 데서 말미암은 인명 표기이다. 앞 음절의 한자 “廣”(넓을 광)과 뒤 음절 “石”(돌 석)의 훈을 좇아 실제 읽히는 구어대로 차자한 표기이다. 그리고 “石”은 石乙, 石伊 등과 함께 접미사 ~돌, ~돌이 등의 차자로서 남성명의 대표적 접미사임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주 16, 31 참조)

383) 古川(고천) : 옛내. (주 282 참조)

384) 允石(윤석) : 윤돌, 윤돌이. (주 343 참조)

385) 資憲大夫(자헌대부) : 조선 시대에 정2품 문무관의 품계.

386) 議政府(의정부), 右參贊(우참찬), 知春秋館事(지춘추관사), 春秋館(춘추관) : 조선 시대 행정부의 최고 기관, 조선 시대 의정부의 정2품 벼슬, 조선 시대 춘추관의 정2품 벼슬, 조선 시대에 시정의 기록을 맡아보던 관청.

387) ▽ : 이곳에 쓰인 ▽ 표는 수결(手決)의 표시를 대신한 것이다. 이하 ▽ 표는 모두 이와 같다.

388) 證參(증참) : 참고가 될 증거, 증좌(證左)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당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